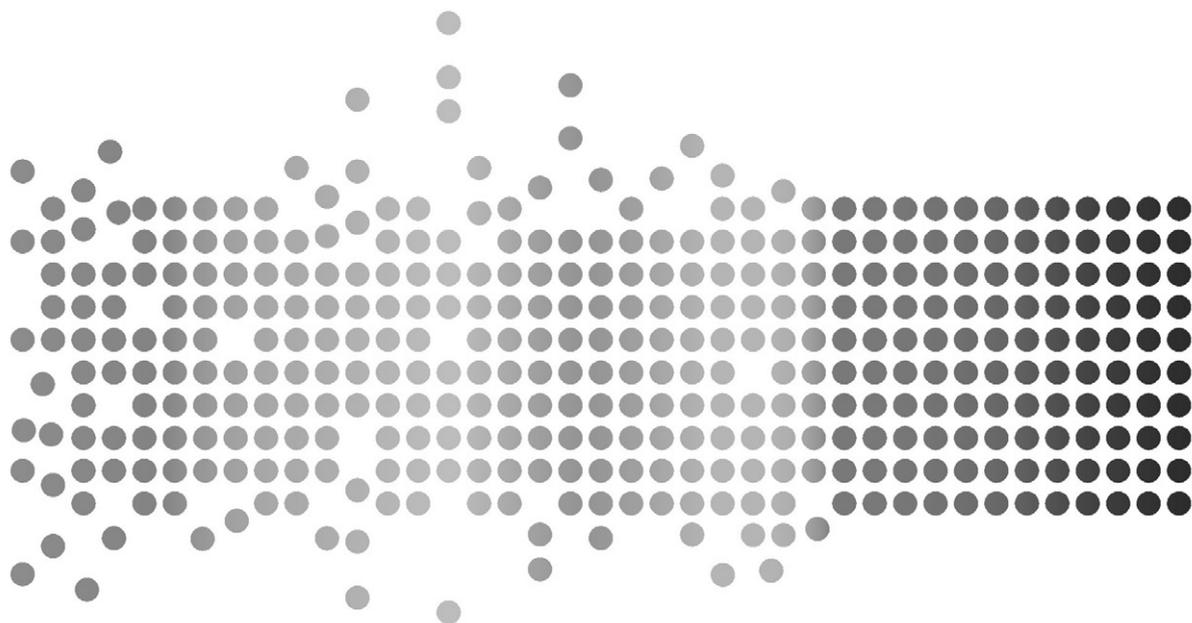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Korean Marital Norms and Their Impact on Low Fertility Rate:
Perspectives of Families with Three Children

염주희 · 정승은 · 주영선 · 정은영



연구보고서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2년
저자 엄주희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82-2 93330

머리말

저출산 현상은 이미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하였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만혼, 주거 및 고용 불안정, 사교육비 부담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혼자들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출산할 자녀의 수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다자녀 출산 증가는 인구학적 추이를 보고하였고, 다자녀 가정의 지역적 특성, 세 자녀 부모의 학력과 수입 정도, 특정성별을 원한 다출산으로의 이행 등의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해결 방안과 같은 기존 연구주제와 차별화하여 출산을 많이 한 부모는 어떤 기재를 통해 다출산을 이루게 되었는지 살펴본 것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다출산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출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출산을 이행한 세 자녀 가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결혼규범이 다출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혼규범은 결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범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 성사, 출산으로 이행, 양육방식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광의의 결혼규범이 기혼가정의 출산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가임연령에 있는 기혼자들이 다출산에 대하여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출산력

이라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 해당하는 저출산과 다출산 중에 하나를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면에서는 양적인 연구방법과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혼합방법론을 취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자료로 양적인 분석을 하고, 보완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질적 연구한 결과를 혼합함으로써 연구의 대상 면에서나, 접근방식 면에서 동료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통해, 다자녀 가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은 어떤 형태를 통해 다출산을 거치게 되었는지, 결혼규범은 이들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논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염주희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에서는 주영선 연구원과 정은영 연구인턴이 참여하였고, 원외에서는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정승은 교수가 참여해주셨다. 네 명의 연구진은 연구 집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박사와 이지혜 전문연구원께 고마움을 표하고, 보고서를 검독하고 조언해주신 정은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원 박사(육아정책연구소), 전명희 교수(한동대학교)께도 감사를 전한다. 더불어 연구진으로 하여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얻게 해 준 15명의 심층면접 참가자와, 이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지인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문제	16
제3절 연구의 구성	17
제4절 연구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한국사회의 결혼규범	21
제2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	25
제3장 연구방법	31
제1절 혼합방법론	31
제2절 양적 연구방법	37
제3절 질적 연구방법	40
제4장 연구결과	53
제1절 다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3
제2절 다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규범적 요소	64
제3절 다자녀 가정의 다출산 경험 과정	75
제4절 다자녀 가정이 바라는 지원 및 저출산 해소 관련 정책적 시사점	96

제5장 논의 및 결론	113
제1절 논의	113
제2절 결론 및 제언	122
참고문헌	127
부 록	133
부록 1. 변수 설명	133
부록 2. 심층면접 관련 자료	136

표 목차

〈표 3- 1〉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37
〈표 3- 2〉 연구 대상 구분(양적)	38
〈표 3- 3〉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42
〈표 4-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4
〈표 4- 2〉 조사 대상자의 취업 여부 및 종사상 지위	60
〈표 4- 3〉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가치관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트	65
〈표 4- 4〉 ‘결혼해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동의 정도 집단 간 차이 비교 ..	70
〈표 4- 5〉 다자녀 가정의 구분(n=225)	76
〈표 4- 6〉 형제자매에 대한 생각 및 자녀에 대한 태도	77
〈표 4- 7〉 집단 ㉠와 전체 다자녀 가정의 피임 실태	85
〈표 4- 8〉 인공유산 경험	86
〈표 4- 9〉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종류	97
〈표 4-10〉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여건의 종류	106
〈표 4-11〉 세 자녀 가정의 자녀 보육, 교육비 지원 도움 정도	107

그림 목차

[그림 1-1] 결혼규범의 정의	16
[그림 3-1] QUAN → qual 혼합방법설계에서 표본 선정 의사결정 방식 ...	34
[그림 3-2] QUAN → qual 설계에서 혼합하는 지점	36
[그림 4-1] 집단 ㉠-A: 성별선호가 없이 다자녀를 원한 가정	77
[그림 4-2] 집단 ㉠-B: 성별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한 가정	80
[그림 4-3] 집단 ㉠-C: 성별과 관계없이 다자녀를 원하지 않은 가정 ..	86
[그림 4-4] 집단 ㉠-D: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나, 셋째 출산과 관련하여 특정성별을 선호하게 된 가정	92



Abstract

Korean marital norms and their impact on low fertility rate: perspectives of families with three children

Low fertility rate in Korea has become a major social issue as married couples delay or forgo childbirth or have fewer children. This report focuses on the families with three children in Korea (also known as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and examines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child-bearing and family planning experiences. The study uses a **QUAL**→**QUAL** mixed method approach combining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and fifteen in-person interviews. The findings illustrate some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tudy sample and subjects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is report includes a model on process of forming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due to various reasons including: 1) wanting more children, 2) wanting a child of a particular gender, and 3) experiencing unplanned pregnancy. Finally, the authors discuss how Korean marital norms affect married couples’ decision to have three children and, based on the findings about the types of service they perceive as helpful,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se families.



요약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출산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다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다출산을 경험하며, 저출산 해소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임.
-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보완한 혼합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출산 가정의 특성과 다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규범을 총체적으로 설명함.
 -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사용하여 다출산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설명하고, 세 자녀 가정을 한 자녀와 두 자녀 가정과 비교함으로써 다출산으로 이행하는 결혼규범 관련 요소 등에 대해 분석함.
 - 세 자녀 가정만을 대상으로 15명의 참여자를 심층면접하여 결혼과 출산, 자녀의 의미 등에 대해 살펴봄.

II. 주요 연구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세 자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04세로 한 자녀를 둔 어머니보

4 •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다 평균 2.7세 많으며, 세 자녀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40.61세로 한 자녀 가정과 두 자녀 가정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심층면접에 참여한 세 자녀 가정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0.6세며,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3.46세임.

- 한 자녀, 두 자녀 가정보다 세 자녀 가정이 ‘읍’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음. 주택 점유 형태는 한 자녀 가정보다 세 자녀 가정의 자가 소유 비율이 더 높음. 하지만 두 자녀 가정보다 세 자녀 가정의 월세 거주 비율이 더 높음.
- 세 자녀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낮음.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의 1/3 이상, 아버지의 4/5이상이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 양적 연구보다 높은 교육수준 가지고 있음.
- 세 자녀 가정의 월평균 수입 및 지출액은 한 자녀 가정보다는 높으나, 두 자녀 가정보다는 낮음. 질적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대부분 중하 및 중간 수준임.
- 두 자녀 가정 어머니의 취업률이 가장 높으며, 한 자녀와 세 자녀 가정 어머니의 취업률 차이는 크지 않음. 질적 연구 참여 가정의 어머니 15명 중 12명이 전업주부로 비구직활동 상태임.

□ 다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규범적 요소

-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형제자매 서열이 높을수록(장남일수록) 한 자녀와 두 자녀보다는 세 자녀를 출산함. 질적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장손인 경우 아들을 출산하고 싶은 마음에서 셋째 자녀를 가지게 됨.
-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가 두 자녀 가정의 아버지보다 형제자매가 이

혼한 경험이 더 많음. 질적 연구에서는 친정부모의 별거로 인해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다자녀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음.

- 양적 연구결과, 자녀가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자녀를 많이 낳음. 질적 연구에서도 자녀란 부모가 살아가야하는 이유로서 삶의 원천, 부부를 이어주는 끈으로 표현하였으며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로 인해 다자녀를 광의로 보면 국가 공공의 자녀로 의미가 있다고 함.
- 세 자녀 어머니가 대체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양육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함.
-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관여하고 있음. 하지만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경우 공부에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시킨 것에 비해 셋째 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욕심이 아닌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점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킴.
-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양육은 친정 부모 및 시부모의 도움을 받았으나, 셋째 자녀의 경우는 부모님의 연세가 높아지면서 도움을 받지 못함.

□ 다자녀 가정의 다출산 경험 과정

- 다자녀 가정은 크게 네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성별 선호 없이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 2) 성별 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 3) 성별 선호가 없으며 다자녀를 원치 않았던 가정, 4) 성별 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치 않았던 가정임.

□ 다자녀 연구를 통한 저출산 해소 관련 정책적 시사점

- 다자녀 가정은 자녀 보육비, 방과 후 학교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대출을 가장 필요로 함.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보육비 뿐 아니라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함.

6 •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양적과 질적 연구 모두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을 우선순위로 제시함.

III. 논의 및 결론

□ 논의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선입견·편견을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셋째 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나 자녀를 가지게 된 경우, 피임 실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혼자와 출산 경험자를 위한 피임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시대가 변하여도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있으며, 이는 아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다출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용하여 특정성별의 자녀를 선호하는 성향을 약화시키고 성별에 관계없는 긍정적인 자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에 관하여 현 제도와 같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정책은 자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더 늘릴 것이며 향후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따라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향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균형있는 가사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사회적으로 조성되어야 함. 기업에서도 직장 보육시

설 확충,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확대하여야 함.

□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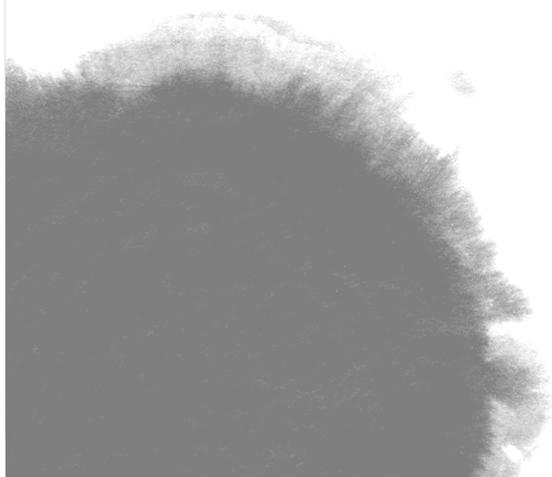
- 다자녀 가정에 관한 다양한 영역별 연구가 확대되어야 함.
-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주요용어: 결혼규범, 다자녀, 저출산, 혼합방법론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1. 다출산(다자녀)

가.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인구학적 출산변화추이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제시한다.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을 발표하며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비를 하였다. 이러한 기존 흐름을 토대로 한국 내 저출산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적 바탕이 마련되었고, 저출산의 원인 탐색 및 해결방안 모색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내 연구 동향이 출산력이 낮은 이유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출산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데 비해서, 이미 많은 자녀를 출산한 다출산 가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출산력이라는 스펙트럼에서 저출산과 다출산을 이의 양 끝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보면, 다출산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기존의 저출산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이 일부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형태일 것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산순위별 출생아수와 관련하여 둘째아수는 감소한 반면 첫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셋째아 이상이 2010년도에는 약 4만9천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보다 1천7백명(3.4%) 증가하여 약 5만1천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또한, 출산순위별 구성비에서 전체 신생아의 11%가 셋째아 이상으로 나타나 1984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언론에서도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아니면 셋 이상을 낳는 출산의 양극화(조선일보, 2012)와 농촌지역 중심의 셋째 출산 증가(중앙일보, 2012)를 다루며 다출산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처럼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흐름 속에서 셋째자녀 출생이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정 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와 관련한 논문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다자녀·다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가 아직 기초 단계에 있기에(문숙재 외, 2007)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다자녀를 둔 부모와 외자녀를 둔 부모를 비교 연구하는 방식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있었으나, 양적인 분석으로 다자녀 가정의 특성을 연구한 논문은 드물다. 관련 주제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인 만큼, 활용 가능한 다양한 연구방법과 접근 방식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나. 다출산(다자녀) 가정의 정의

엄밀히 말하면 다자녀 가정과 다출산 가정은 동의어가 아니다. 다자녀

가정의 예로는 자녀를 한 명 출산하고 여러 명의 아이를 입양한 가정도 될 수 있고, 부·모가 각각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경우도 될 수 있다. 또한 출산은 여러 번 겪었으나 자녀 사망으로 인해 현재는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다자녀 가정과 다출산 가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 관련 지원혜택을 세 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는 형태가 많아, 세 자녀 가정(셋째아를 출산한 가정)과 다자녀 가정을 똑같이 여기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는 관점에서 우회적으로 자녀를 많이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설계를 하였으므로, 다출산이라는 어휘를 선호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문맥을 같이하고 연구결과 확산에 부합하고자 본 보고서에서는 다출산과 다자녀를 동일한 개념으로 놓고 혼용하기로 하겠다. 자녀수에 있어서는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다출산·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국내 기혼 가정의 기대자녀수가 2.2명인 점을 감안하여 부부가 두 명 정도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김정숙, 2006) 이 보다 많은 세 자녀를 다출산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2. 결혼규범

가. 연구의 필요성

결혼규범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사회마다 다르다. 과거에는 존재하던 규범들이 현재에는 없어지거나 완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 일례로,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일찍 결혼을 하는 경향은 순서규범에 따른 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이삼식

외, 2009). 하지만 시대에 따라 적정자녀수가 달랐던 한국사회에서는 형제자매수와 관련이 있는 순서규범의 영향력이 변화되었을 수 있다.

결혼규범의 또 다른 형태인 성역할규범은 결혼과 출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며 가정 내에서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근대적 성역할규범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증 연구에서는 가치관이나 규범이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충분히 탐색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삼식 외, 2009). 이는 결혼 가치관 및 규범이 혼인과 출산이라는 종속변수에 끼친 영향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연구 설계상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이미 발표된 논문의 양으로 평가하더라도, 저출산 분야에서는 결혼 전 가족관계, 결혼 가치관 및 결혼에 관한 사회적 규범과 같은 영역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심층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인구학적 요인을 다룬 심층면접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미혼인 응답자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한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같은 경험을 한 미혼 여성은 결혼을 앞당기는 경향을 보였다(이삼식 외, 2009). 부모의 이혼경험이 자녀의 결혼 시기 결정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한다는 점은 원가족과의 경험이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알아봐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출산을 다룬 제4장에서는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의 가치관을 연구하며 이러한 영역들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은 결혼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성역할규범 등이다. 이 연구는 위의 요인들이 기혼 여성들의 출산

및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이삼식 외, 2009). 기존의 연구들이 가족관계 혹은 가치관이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다루었지만, 이들은 큰 틀에서 보면 결혼규범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여질 수 있다. 여러 영역에 걸쳐 나누어져 있는 결혼규범적 요소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재정의함으로써 연구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나. 결혼규범의 정의

결혼규범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결혼규범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결혼규범을 협의로 보았을 때는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동안 영향 받는 규범으로 정의하여 연령규범, 순서규범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연령규범은 적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 시기에 관한 규범으로 여성의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은기수, 1995). 위의 예시에서 본 협의의 결혼규범을 저출산과 연관 지어서 연구할 때에는, 한국의 결혼규범이 출산의 선행요구조건이 되는 결혼성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결혼이 직접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 세대에서는 협의의 결혼규범뿐만 아니라 혼인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규범에 대해서도 살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규범을 광의로 정의하고, 이것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1-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광의의 결혼규범은 가치규범, 출산 규범, 양육 규범, 자녀가치관을 포함한다. 가치규범은 원가족의 경험에서 영향 받은 규범으로 원가족과의 경험, 부모 또는 형제의 이혼 별거·재혼 경험, 형제자매 수, 형제·자매 서열 순서를 들 수 있다. 출산 규범은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는 규범으

로, 자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육 규범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영향을 주는 규범으로 양육 및 교육에 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방식과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관해 도움 받은 정도를 말한다. 자녀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는 규범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그림 1-1] 결혼규범의 정의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다자녀 가정은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2. 결혼규범은 다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다자녀 가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다출산을 경험하는가?
4. 다자녀 가정이 바라는 지원은 무엇이며 다자녀 가정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저출산 해소 관련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용어 정의, 연구 문제를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다자녀 가정 및 결혼규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설계 및 방법론을 포함하였다. 제4장에서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다자녀 가정의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연구 성과를 기술하며 앞서 언급한 네 가지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연구수행에 사용하였던 도구들을 첨부하였다.

제4절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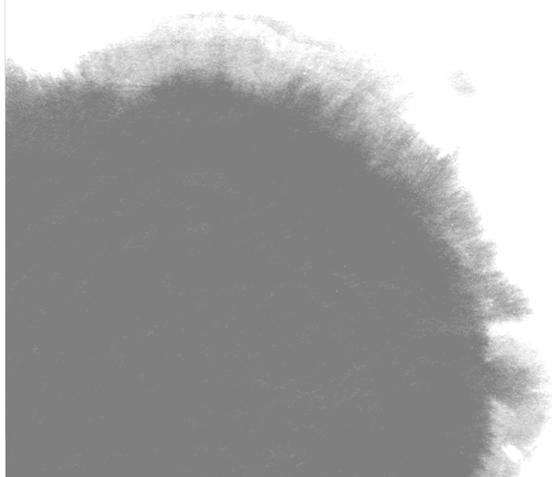
본 연구는 양적데이터를 주자료로, 질적 데이터를 보완자료로 사용한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자세한 연구방법은 제3장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제1장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혼합방법론은 Morse와 Niehaus(2009)의 모델에 근거하여 양적 핵심연구와 질적 보완연구의 연속설계를 따랐다. 양적 분석에서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 제곱 검정, 분산분석, 다항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 대상은 연구설계의 기준에 맞는 응답자로 이들을 자녀수별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변수 및 결혼규범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결혼과 출산, 자녀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다자녀를 둔 부모 15명에 대해 질적인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였고, 주제분석 기법(thematic analysis)을 사

용하여 결혼규범과 다자녀 연구 주제 및 하위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양적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며, 양적, 질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자료 해석단계에서 혼합하는 연구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두 연구의 말미에 결과 및 해석에서 통합이 되는 단계로 이 과정을 통해 다출산 가정의 특성과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혼규범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2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 절 한국사회의 결혼규범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결혼규범이 존재한다. 결혼규범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결혼규범을 연령규범, 순서규범, 성역할분리규범 등으로 정의하였다. 연령규범은 결혼적령기규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적정한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시기에 관한 규범이며, 순서규범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은기수, 1995). 또한 성역할분리규범은 결혼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에게 구별되는 규범이 있다는 것인데, 남성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에 따라 결혼시기가 결정되고, 여성의 경우는 결혼으로 인해 획득하는 대리적 지위에 의해 결혼시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박경숙 외, 2005). 이러한 다양한 결혼규범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규범들이 상호작용하며 결혼으로 이행하게 된다.

위에서 거론한 결혼규범은 주로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혼인이 아닌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결혼규범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영역들은 가치규범, 출산규범, 양육 규범, 자녀가치관을 포함하며, 본 절에서는 문헌을 통해 결혼

규범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치규범

가치규범은 원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규범이다. 대체적으로 원가족과의 경험, 부모 형제의 이혼·별거·재혼 경험, 형제자매 출생순위 등으로 원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을 가치규범이라고 정의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와 가족의 영향력이 크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부모가 결혼 상대자를 자녀 대신 찾아주거나 결혼을 해서도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원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회적 태도는 자녀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한다(김종백과 유은영, 2010).

원가족이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출산력이 더 높았다(김성혜와 김초강, 1991). 이미 부모가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은 자녀의 삶에 부모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도 부모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존재가 딸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어(정혜은과 진미정, 2008),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에 원가족의 존재와 경험은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인과 남편의 출산순위에 따른 출생아 수를 조사한 이삼식 외(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인과 남편이 첫째인 경우 출생아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첫째로 자리면서 형제자매 수가 많았던 것이 자녀계획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출산규범

출산규범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규범이다. 자녀 필요성 혹은 자녀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등에 대한 생각이 출산규범을 대변한다. 자녀 필요성은 기혼여성들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지의 여부 및 얼마나 필요하다고 여기는지의 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삼식 외(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자녀 어머니들은 자녀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둘째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또한 출산규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강혜진(2009)의 연구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요인으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남자 아이의 출산을 명시하였다. 또한 아들이 없는 경우, 출산계획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명진, 2009; 임춘희, 2011), 남편이 외동아들일 경우, 출산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혜와 김초강, 1991). 이는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대를 잇기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아들이 대를 잇는다는 관점은 차이가 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남정은과 정정희, 2012) 여전히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부계 중심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강복수, 2001).

3. 양육규범

양육규범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영향을 주는 규범이다. 양육규범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태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책임감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양

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삼식 외(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양육 및 교육에 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방식, 분담정도, 남편의 양육 시간 등을 조사하였는데, 두 자녀 가정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무자녀 가정의 남편보다 높았다. 또한 남편이 생활비 관리를 주도하는 경우, 자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삼식 외, 2009).

자녀 양육태도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고, 그 보다는 자녀수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가 많았다. 한 자녀 기혼여성과 다자녀 기혼여성을 비교한 송호경(2004)의 연구에서는 한 자녀의 어머니는 교육정도와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육태도를 보였고, 다자녀의 어머니는 대졸 이상 학력일 경우 자녀에게 더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자녀의 성별과 어머니의 직업유무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양육태도를 보였다. 서안리와 정영숙(2009)의 연구는 다자녀 어머니보다 한 자녀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애정적으로 대하며, 자녀의 놀이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감과 자녀수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로 인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강유진, 2007). 이는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커져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스트레스로 이어져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강경숙 외, 2005; 이인숙, 2005).

마지막으로 친정 및 시부모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와 출산 자녀수와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혼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출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혜, 김초강, 1991). 또한 친정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제공되므로 기혼자의 첫째 자녀 출산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현식, 김지연, 2012). 이는

확대가족에서 자녀양육에 관한 지지와 지원이 더 많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는 규범으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생각을 담고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권용은과 김의철, 2004).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녀 가치관이 높은 출산율과 직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수록 둘째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9). 또한 기혼 여성 응답자들이 형제자매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9). 이해경(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를 통해 가족의 수를 늘리거나 부부간의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하는 등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녀를 많이 출산한다고 하였다.

제2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

저출산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역으로 다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로는 양육관련, 출산 영향요인, 인식탐색 등에 대한 연구가 전부이다. 본 절에서는 다자녀를 이루게 된 계기, 다자녀 가정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의미, 다자녀 가정에 관한 사회의 편견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다자녀를 이루게 된 계기

가. 피임실패

강혜진(2009), 이해경(2011)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다자녀를 가지게 된 배경으로 계획된 자녀 출산이기보다 피임의 실패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응답자들은 모두 기혼자로 이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피임 또는 피임의 실패로 인해 자녀를 낳은 경우였다. 이는 자녀 양육법을 다루는 부모됨 교육과 더불어 피임에 대한 건강 교육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임춘희(2011)의 연구에서도 다자녀 가족의 형성 동기를 질적 분석한 결과, 비의도적, 무계획적으로 다자녀를 가지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문숙재 외(2007)의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로 다자녀 가정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애초부터 다자녀를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수용과 적응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여성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과 양육자의 낙천적인 인성이 특징으로 들어났음을 밝혔다.

나. 심리사회적 요인

이해경(2011)은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양육 배경 요인을 질적 분석하였는데 다자녀에 대한 막연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자녀를 부모의 분신으로 보는 경우, 가계의 가족 수를 늘리려는 대가족 형성 의지가 반영된 경우, 자녀를 통해 부부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경우, 유년기의 경험과 삶의 과정에서 형제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 주변인들의 셋째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권유가 있었던 경우 등이 다자녀 출산의 배경이라고 하였다.

2. 다자녀의 의미

문숙재 외(2007)는 질적 연구를 통해 다자녀 가족에서 자녀의 의미와 출산의 동기 및 이들의 인적자본 투자 양상과 자녀에 대한 기대를 살펴 보았다. 이에 따르면 자녀의 의미는 인간과 신의 독특한 관계를 규정짓는 상징, 응답자의 행복을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을 비취보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자녀라는 가족구성 자체에서 사회성, 협동, 독립성 등의 인적자산이 창출되며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였다.

임춘희(2011)는 다자녀 가족 부부와 개인이 다자녀 가족의 강점 즉 건강성을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응답자들은 비의도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이루게 된 상황에서도 후회하기 보다는 적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삶에 대한 강한 의욕,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과 의지, 부부간의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과 강한 유대의식,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행동 참여증가 등의 다자녀가족의 강점 및 건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다자녀 가정에 대한 편견

한국사회에서는 다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편견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다자녀를 낳으면 책임감 없는 출산이라는 사회적인 압박 또한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은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무책임하다는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리기도 한다(뉴스웨이, 2012).

문숙재 외(2007)의 연구에서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의 의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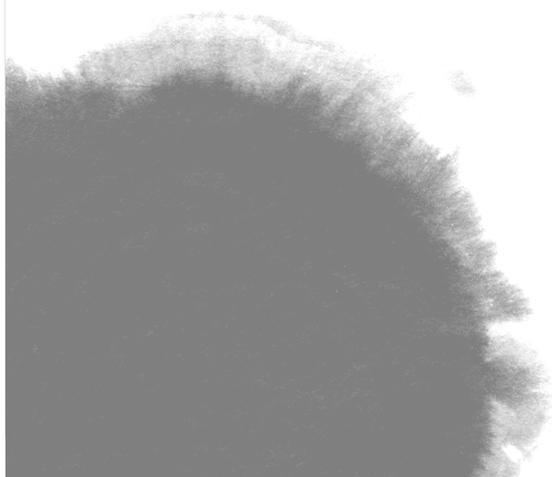
에 대해 면접조사와 질적 분석을 한 결과, 다자녀 가정 심층면접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다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는 인식을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김정숙(2006)의 연구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은 자신들이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변에서 다자녀를 갖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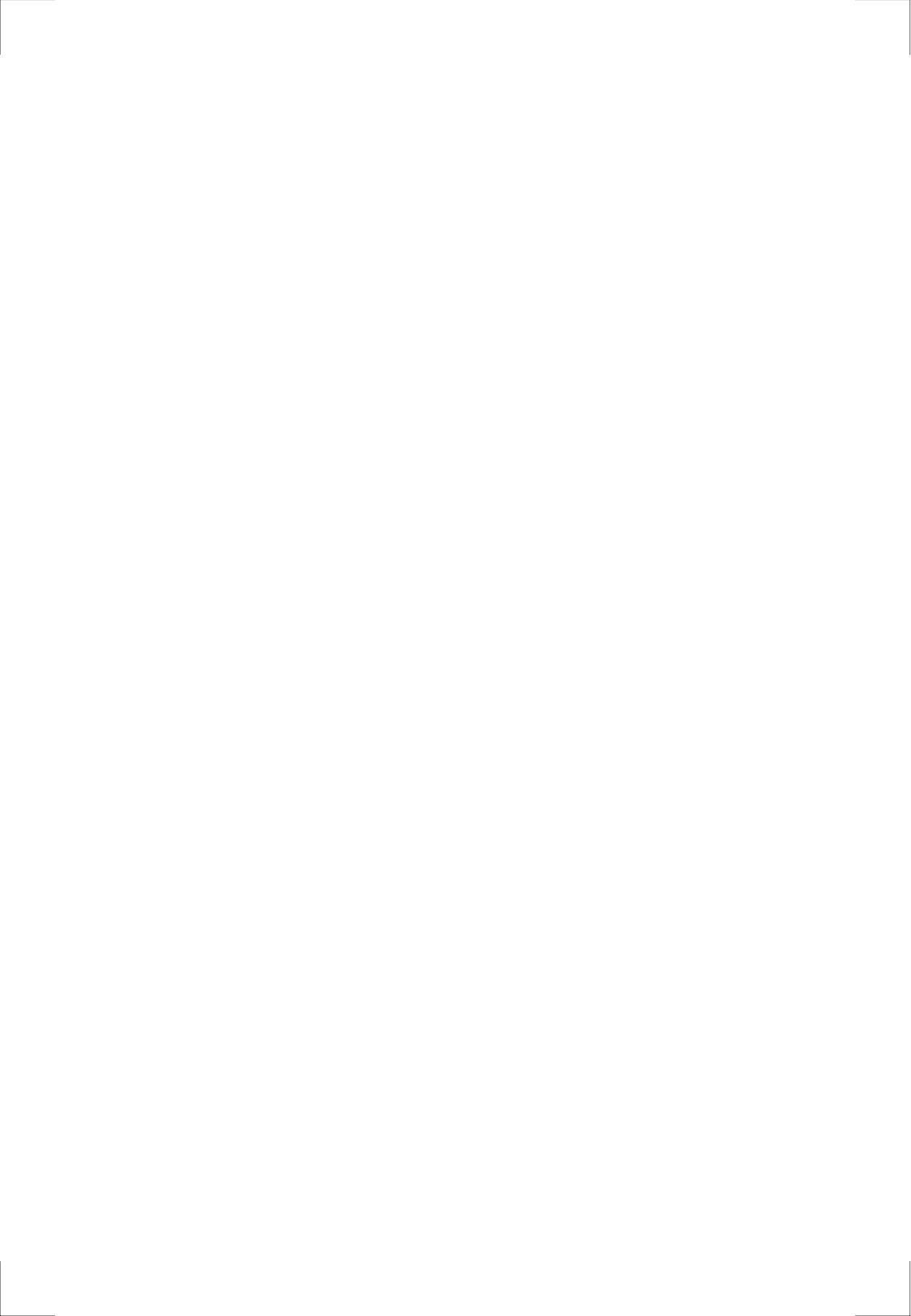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높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인해 다출산과 경제적 여유를 연결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신호영(2009)의 연구결과,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출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에 경제적 자원이 많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김승권(2010)의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자녀가 출생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 한 명 당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약 2억 6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회적 편견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장에서 결혼규범이 다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3장

연구방법





제3장 연구방법

제1 절 혼합방법론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였다. Denzin(1989)은 혼합방법론의 장점으로 한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서 놓칠 수 있는 이해나 통찰을 첨가할 수 있고,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결론에 대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으로 축적된 이차 자료만으로는 결혼규범이 다자녀 가정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질적인 자료로 양적연구를 보완하는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QUAN → qual 혼합방법설계 채택

Morse와 Niehaus(2009)에 따르면 혼합방법설계는 연구에서 일차적이고 주요한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와 함께 보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보완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연구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는 동시설계와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연속설계가 있다. 이와 같이 핵심요소와 보완요소를 다양하게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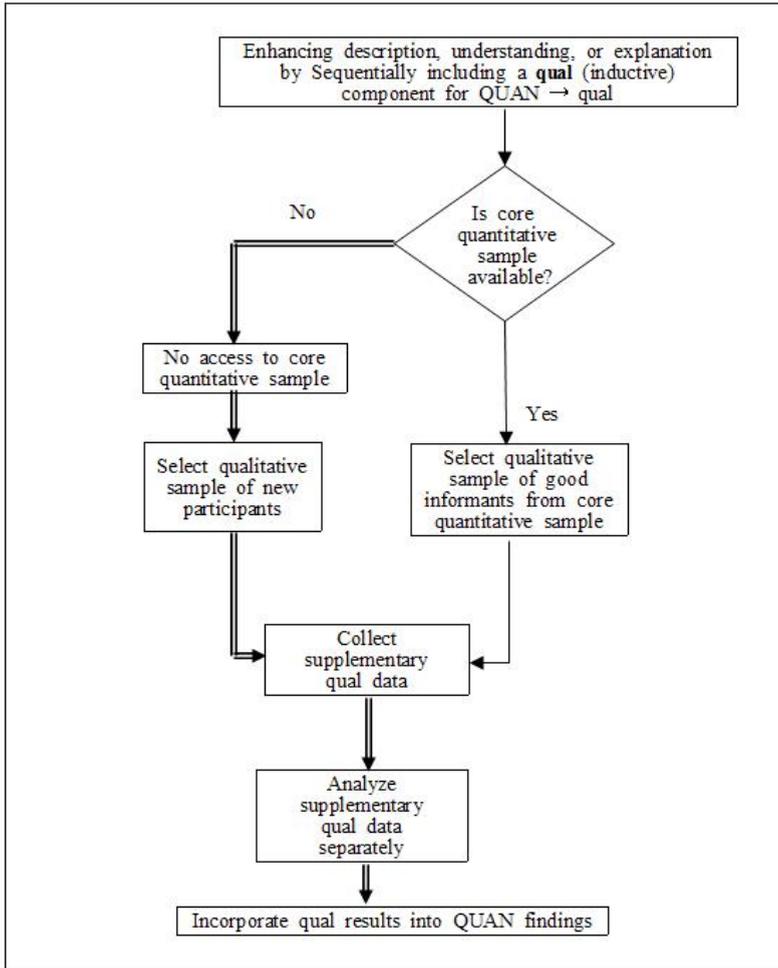
합하면 여덟 가지의 혼합방법설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양적 핵심연구와 함께 질적, 양적 보완연구가 동시적 혹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네 가지 경우와, 질적 핵심연구와 함께 양적, 질적 보완연구가 동시적 혹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라는 양적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관심 영역과 사용 변수들을 선택하였고, 양적 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개방형의 반구조적 질문지를 만들어 질적인 접근으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안내 질문들이 큰 틀 안에서 제공된다. 이는 연구자가 과도하게 조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이끌어 내기 위함이며, 일반적으로 주제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설계는 QUAN → *qual*의 형태를 취한다. 이 때 영문 대문자는 핵심이 되는 연구를, 소문자는 보완적인 연구를 뜻하며, 화살표는 연구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핵심 연구에 이어 보완 연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본 연구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가 핵심 데이터이며, 15명의 다자녀 가정을 심층면접한 질적 자료가 보완 데이터가 되는 연구설계를 갖추었다. QUAN → *qual*의 혼합방법설계를 선택한 이유는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일 수 있는 양적 핵심연구에, 세부 맥락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덧붙이고 추가할 수 있기 위해 질적 보완연구를 뒤이어 전개한 것이다.

2. 표본 선정

혼합방법론에서는 혼합하는 두 연구의 표본을 같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표본이 다르다. 이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는 양적 핵심연구의 표본에서 질적

보완연구를 위한 표본을 추출하여 같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표본을 선정하여 자료 수집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양적 자료는 2009년 원자료 구축 당시 표본 설계가 끝난 것이어서 본 연구가 진행된 2012년에는 3년 전 표본 중 일부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질적 보완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들이 직접 자료 수집에 참여하여 구축한 것이다.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Morse와 Niehaus는 혼합방법론의 표본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도식화 하였는데, 본 연구진은 이 모델을 따라 의사결정을 한 과정을 실선 두 줄로 표시하여 강조하였다.

[그림 3-1] QUAN → qual 혼합방법설계에서 표본 선정 의사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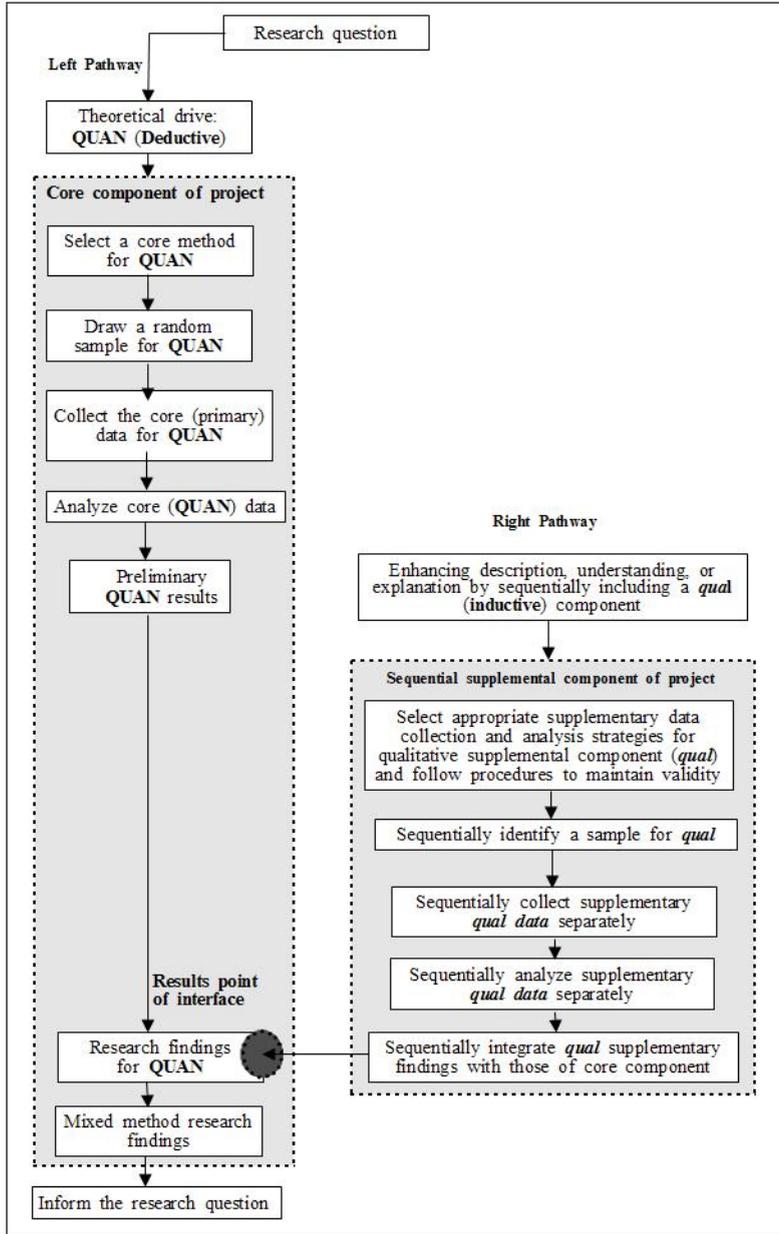


주: Morse와 Niehaus (2009). Mixed method design: principles and procedures, p. 76에서 수정 보완한 자료임

3. 핵심과 보완연구의 만나는 지점

지금까지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본 연구의 설계상의 유형(Quan → qual)과 표본 선정방식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언제 통합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관한 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속적 기법을 사용하였고, 두 데이터의 표본출처가 다르므로 각각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결과에서 통합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에 본 연구에서 따른 혼합방법설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해보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QUAN → qual 설계에서 혼합하는 지점



주: Morse와 Niehaus (2009). Mixed method design: principles and procedures, p. 137에서 인용.

제2절 양적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다자녀 가정 기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다자녀 가정의 유형, 결혼구범이 다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조사 년도	1차 조사 : 2005년, 2차 조사 : 2009년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대상	- 조사가구 10,211 가구 - 기혼여성 : 만20세~44세 3,314명 - 미혼자 : 만20세~44세 3,585명
조사 방법	면접 조사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조사 :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 주택 유형, 소유여부, 소득액 ▶미혼남녀 : 부모로부터 독립실태, 경제활동, 경제상황, 가족 및 형제, 자매 관련 사항, 결혼에 관한 태도, 경험, 자녀 및 출산에 관한 태도, 출산, 결혼,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기혼여성 : 결혼에 관한 태도, 실태, 생활, 남편과 역할분담, 결혼당시 상황 등, 출산 계획실태, 임신, 불임실태, 자녀에 대한 태도, 이상 자녀수,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 보육 및 교육 실태, 정책 선호도 등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만 20세~44세의 기혼 여성 중 유배우 유자녀(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아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3-2〉 연구 대상 구분(양적)

연구 대상	N
1) 가구주(남성) + 가구의 배우자(여성) + 한 자녀	732명
2) 가구주(남성) + 가구의 배우자(여성) + 두 자녀	1,481명
3) 가구주(남성) + 가구의 배우자(여성) + 세 자녀	256명
전체	2,469명

연구 대상을 유배우 유지녀 가정으로 한정된 이유는 현대의 핵가족 구성원 중심의 표본을 반영하는 동시에 질적 연구 대상자와 유사하게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연구진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출생 자녀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구주가 아버지가 아닌 경우, 자녀수가 네 자녀 이상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 자녀 가정 732명, 두 자녀 가정 1,481명, 세 자녀 가정 256명으로 총 2,469명이다.

2. 변수 및 분석 방법

가. 변수

먼저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조사구(읍, 면, 동), 주택 점유 형태(자가, 전세, 월세),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지출액,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취업상태(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다자녀 가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다출산을 경험하는지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이상적인 자녀 수, 형제자매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태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으로는 ‘자녀가 있으

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등의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자녀를 출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규범적인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가치규범, 출산규범, 양육규범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치규범 변수는 원가족으로부터의 영향에 관한 것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총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서열, 친정 부모님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여부, 형제자매 중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여부이다. 출산규범 변수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이며, 양육규범 변수로 부부간 자녀양육에 관한 의사 결정(부인이 결정, 공동으로 결정), 부부간 자녀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부인이 결정, 공동으로 결정), 친정, 시부모로부터 자녀 양육 도움 받은 정도에 관한 것을 활용하였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형, 결혼규범이 다출산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집단간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와 ANOVA를 이용하였다. 또한 다항로지분분석을 활용하여 결혼규범이 다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치규범, 출산규범, 양육규범이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3절 질적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출산(다자녀) 가정의 결혼과 출산, 자녀의 의미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최근 들어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가정과 사회의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질적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질적 분석은 놀라울 만큼 다양해지고 있는데, 질적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주제분석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하여 질적 주제분석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셋째 자녀를 출산 예정인 자도 (1명) 포함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유아교육기관, 지역주민 홈페이지 그리고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기초하여 연구 문제에 대해 가장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표본을 추출한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력, 성별, 종교, 직업유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였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 3명, 어머니 12명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한 쌍의 부부가 있었고, 그들의 심층면접은 따로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 내용도 상이하였기에 개별 참여자로 처리하였다. 참여자의 나이는 32~47세까지 분포되어 평균 나이는 41세였다. 결혼기

간은 6~29년으로, 평균 14.6년 이었다. 참여자의 결혼 당시 나이는 평균 27세, 배우자의 결혼 당시 나이는 30세였다. 참여자의 자녀 구성은 딸-딸-딸 3명, 딸-딸-아들 3명, 딸-아들-딸 3명, 딸-아들-아들 1명, 아들-아들-아들 4명, 아들-딸-딸 1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7명, 무교 6명, 그리고 천주교가 2명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9명, 대학원 수료 및 졸업 2명이었으며 고졸은 4명이었다. 참여자 중 아버지 3명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업을 가진 어머니는 가계사업 보조 1인, 환경단체 강사 1인, 대학원생 1인, 회사원 1인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전업주부였다. 경제수준은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가지 범주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었다. 참여자의 경제수준은 중하 7명, 중 5명, 하 2명, 그리고 중상 1명으로 보고하였다.

〈표 3-3〉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I D	성 별	나 이	배우자 나이	자녀연령 및 구성			직업 (배우자)	종교	교육수준 (배우자)	경제 수준
				첫째	둘째	셋째				
1	남	40	37	11 (딸)	6 (딸)	10개월 (아들)	사무직 (전업주부)	무교	대졸 (대졸)	중
2	여	46	50	19 (딸)	17 (아들)	16 (아들)	전업주부 (건설업)	천주교	대졸 (대학원)	중상
3	여	55	57	27 (딸)	24 (딸)	19 (딸)	전업주부 (공무원)	천주교	대졸 (대학원)	중
4	여	38	41	6 (아들)	2 (아들)	출산 예정 (아들)	전업주부 (사무직)	기독교	대졸 (대졸)	중하
5	여	39	45	14 (딸)	13 (딸)	9 (아들)	사업보조 (자영업)	기독교	고졸 (대졸)	중하
6	여	32	37	7 (딸)	3 (아들)	1 (딸)	전업주부 (목회자)	기독교	대졸 (대학원)	중
7	남	47	47	21 (딸)	20 (딸)	13 (아들)	회사원 (전업주부)	무교	대졸 (고졸)	중하
8	여	34	35	8 (아들)	4 (딸)	6개월 (딸)	회사원 (회사원)	무교	대졸 (대학원)	중
9	여	43	53	16 (아들)	14 (아들)	10 (아들)	대학원생 (사회단체활동)	무교	대졸 (대졸)	중하
10	여	40	40	13 (딸)	9 (딸)	7 (딸)	강사 (엔지니어)	무교	고졸 (고졸)	중하
11	여	33	32	4 (딸)	3 (아들)	6개월 (딸)	전업주부 (목회자)	기독교	대졸 (대학원)	하
12	남	32	33	4 (딸)	3 (아들)	6개월 (딸)	목회자 (전업주부)	기독교	대학원졸 (대졸)	하
13	여	42	45	15 (딸)	12 (딸)	11 (딸)	전업주부 (의사)	무교	대졸 (대졸)	중
14	여	45	49	19 (아들)	17 (아들)	11 (아들)	전업주부 (개발회물)	기독교	대학재학 (고졸)	중하
15	여	46	49	20 (아들)	18 (아들)	16 (아들)	전업주부 (단순노무직)	기독교	고졸 (고졸)	중하

2. 자료수집 절차

연구자들은 토의를 거쳐 심층면담에 사용할 개방형 반구조적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 앞서 어머니 1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통해 면접 시 물어볼 내용과 순서, 면담시간 등 전반적인 과정들을 검토하였다. 면담은 2012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전화로 면담을 위한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여 참여자의 집, 커피숍, 교회 및 학원 내 상담실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모든 참여자는 1회 심층면담에 참가하였고, 면접이 끝난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시에는 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구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면접내용의 녹음 등과 관련된 연구설명서를 보여주며 동의를 얻었고 문서화된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접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면접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면접 전에 참여자 정보 양식을 이용해 가족 관계 및 인구학적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면접을 수행하면서 이 양식에 기입된 자료들을 보며 면접 질문을 세분화하는데 참고하였다. 면접 시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형식을 사용하였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질문들은 면접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루면서 진행되었으며, 질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면접을 위한 질문 가이드

1. 응답자의 결혼에 관한 질문

- 결혼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 결혼하기로 결심하는데 있어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 결혼하실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간, 환경, 물리적 상황 등)
-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게 되었거나, 더 미룰 수도 있었는데 하게 되었다 등)
- 결혼생활을 하는 데에 role model(역할모델)이 있(었)습니까? 왜 그 분 또는 가족들을 역할모델로 삼으셨습니까?

2.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자녀일 때, 두 자녀일 때, 세 자녀일 때, 각기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3.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특징

- 몇 명부터 다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 왜 2명 혹은 3명을 출산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어떤 요인이 다자녀를 출산하도록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
- 출산 할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시간, 환경, 물리적 상황 등)
-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는 데에 자녀수가 많은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다음 세대에게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층 면접이 끝난 다음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담은 문항들을 모은 간략한 설문지에 응답을 요청하였다. 이 문항들은 기존의 관련 연구(김의철 외, 2005; 손승영, 김은정, 2010)에서 쓰인 문항들 중 결혼가치관에 관한 4문항(‘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여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 ‘남자는 결혼을 해야 생활이 안정된다’, ‘반드시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 출산가치관에 관한 4문항(‘결혼 후에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아이가 없더라도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관 및 자녀양육 부담에 관한 22문항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에 대한 문항에는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자녀관에 대한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녹취한 파일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로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방법대로, 1차로는 질적 연구와 심층면접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연구보조원 및 대학원생이 음성파일을 문서로 전환하고, 2차로 연구보조원이 음성파일을 다시 들으며 녹취가 완성된 출력본을 가지고 검증 후 최종 데이터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쓰인 심층면접 관련 자료들은 [부록 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면접은 질적 연구 유경험자인 연구자 두 명이 직접 수행 하였고, 면접 후에는 면접에 대해 보고하고, 연구 방향 및 면접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 따라서 매회 면접이 끝난 뒤에는 기존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참가자를 결정하는데 반영하였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동료 집단의 조언 및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Padgett, 1998) 두 명의 연구자가 사례

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총 15회에 걸친 면접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심층 면접에서는 앞에서 만났던 응답자들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느껴 자료수집에 있어 공통의 경험을 가져오는 지점이 드러나면서 포화점(전희경, 2012)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면접 참여자의 면접 내용을 녹취한 녹취파일과, 면접을 수행한 연구자의 연구노트, 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내용, 그리고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해 응답한 설문내용이다. 즉 질적 연구의 자료를 다원화(data triangulation)하는 차원에서(Padgett, 1998)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면접참여자가 제시한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제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그 개념을 발견하여 각 개념 간의 관계를 찾아 파악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연구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이기도 하다. 질적 자료의 주제분석은 연구결과를 정책적 측면에 적용가능하게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심층적 기술과 설명을 제공해주고, 자료에서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보여줄 수 있으며, 기대하지 않은 관점들을 일반화할 수 있고, 정책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 내에서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를 확인하고 기술하고자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6단계를 거쳐 분석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녹취록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의미 있는 부분(단어나 구,

문장, 단락)에 밑줄을 긋고 의미를 생각하며 자료와 친숙(familiarising oneself with the data)해지려고 노력하였다.

2단계에서는 결혼과 출산, 자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분류표를 작성하여 초기 코드(generating initial codes)를 분류했다. 이때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거나 필요한 부분은 녹음내용을 다시 듣기도 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2차례에 걸친 토의를 통해 각자 의미 있는 진술에 대해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싶음’, ‘자녀는 2명이 적당함’, ‘실수로 임신이 됨’, ‘셋째 출산에 대해 갈등함’, ‘대학등록금 걱정’, ‘정부 지원’ 등과 같은 코드가 추출되었다.

3단계에서는 추출된 코드 자료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 잠정적인 주제를 추출(searching for themes)하였다. 즉 코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로 합칠 수 있는 코드가 있는지, 특정 코드가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와 코드, 잠정적인 주제를 오고가는 반복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면, ‘자녀가 많은 것이 좋아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셋째를 임신함’이라는 코드가 있었다. 여기에서 ‘많은 자녀’, ‘아들 선호’라는 코드는 ‘셋째 임신 이유’라는 하위주제로, ‘셋째 임신 계획함’이라는 코드는 ‘계획된 임신’이라는 하위주제로 정리되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다출산 경험 과정의 한 영역인 ‘많은 자녀를 원했던 다자녀 가정’과 ‘아들을 위해 셋째를 계획한 다자녀 가정’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잠정적인 하위주제들을 살펴보면서 결혼을 통해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사회적 지원을 받은 내용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결혼’, ‘임신 및 출산’, ‘다자녀’, ‘양육’,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이끌어냈다.

4단계에서는 주제가 제대로 추출되었는지 확인(reviewing themes)하기 위해 연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수정 과정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양가감정’이라는 하위주제에 대해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함께 양육 책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나름대로의 양육 방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제를 분리하여 설명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육의 부담’과 ‘양육 책임의 한계 인정’이라는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또한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및 분석에 걸친 전 과정을 설명한 후, 자료와 코드, 잠정적인 주제와 하위주제로 구성된 분석표를 보여주고 다자녀를 둔 부모의 경험으로 충분히 이해되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자문 받은 내용 중에서 한 예를 살펴보면, 다자녀를 둔 부모의 경험으로 주제가 될 수 있는 코드 내용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권유받았다. 셋째를 임신했을 때, 세 딸을 낳아 키우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는 경험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다자녀, 특히 아들이 없는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험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와의 면담 녹취록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경제력과 결부시켜 바라보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담감을 느꼈다는 인터뷰 내용이 다소 약화되어 분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위의 시선과 편견에 신경 씬’이라는 코드 내용을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라는 하위주제로 재분석하여 그 의미 해석을 강조하였다.

5단계에서는 주제를 정련화하는 과정으로 각 주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주제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주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명명(defining and naming themes)하였다. 이 때 주제명을 적절하게 기술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최종 분석표를 기반으로 네 페이지 분량의 분석결과 요약본을 작성하였다. 이를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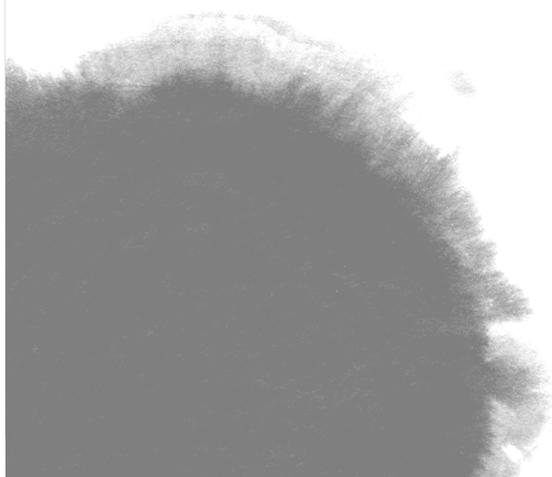
녀 부모에게 읽어보도록 하여, 분석결과가 다자녀 가정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연구결과의 사실적 가치와 적용성에 대한 평가를 구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producing the report)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주제와 하위주제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다자녀를 둔 부모 경험의 질적 결과는 핵심요소인 양적 연구결과와 통합하여 더욱 풍부하게 기술하였다.



4장

연구결과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다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절에서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다자녀 가정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대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이들을 한 자녀·두 자녀 가정과 비교함으로써 대상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심층 면접에서 조사된 응답자 가정의 특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4-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녀수 구분						χ^2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		
	N	%	N	%	N	%	
조사구							15.94**
동	644	88.0	1,268	85.6	201	78.5	
읍	57	7.8	136	9.2	40	15.6	
면	31	4.2	77	5.2	15	5.9	
주택 점유형태							70.44***
자가	330	45.1	925	62.5	160	62.5	
전세	326	44.5	435	29.4	66	25.8	
월세(보증부월세, 사글세,기타)	76	10.4	121	8.2	30	11.7	
어머니의 교육수준							40.40***
고등학교 이하	350	47.8	844	57.0	179	69.9	
대학교 이상	382	52.2	637	43.0	77	30.1	
아버지의 교육수준							18.58***
고등학교 이하	278	38.0	648	43.8	136	53.1	
대학교 이상	454	62.0	833	56.2	120	46.9	
월평균 가구소득							25.76**
100만원 미만	7	1.0	8	0.5	1	0.4	
100~200만원미만	84	11.5	128	8.6	32	12.5	
200~300만원미만	232	31.7	412	27.8	83	32.4	
300~400만원미만	233	31.8	454	30.7	65	25.4	
400~500만원미만	100	13.7	266	18.0	38	14.8	
500만원 이상	76	10.4	213	14.4	37	14.5	
전체	732	100.0	1,481	100.0	256	100.0	
	Mean	SD	Mean	SD	Mean	SD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309.17	147.72	329.32	144.21	320.87	167.86	$F(2,2421)=4.48^*$
월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216.71	86.74	245.75	103.27	249.85	108.63	$F(2,2405)=22.63^{***}$
어머니의 나이 (단위: 세)	34.33	5.25	37.48	4.18	37.04	4.40	$F(2,2469)=119.65^{***}$
아버지의 나이 (단위: 세)	37.01	5.95	40.41	4.80	40.61	4.98	$F(2,2469)=113.01^{***}$

* $p<.05$, ** $p<.01$, *** $p<.001$

1. 연령

<표 4-1>의 맨 아래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7.04세, 아버지들의 평균 연령은 40.61세였다. 먼저 세 자녀 어머니의 연령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응답자의 수가 집단별로 편차가 있기에 ANOVA의 Scheffe 검정법을 사용한 결과(박용권, 2010), 세 자녀 어머니의 나이는 한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평균 2.7세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2469)=119.65, p<.001$). 반면, 두 자녀 어머니(평균 나이= 37.48세)와 비교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질적 보완연구를 위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의 연령은 32~55세 사이였고, 30대가 7명, 40대가 7명, 50대가 1명이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40.6세로, 양적 연구의 대상자인 세 자녀 어머니보다 다소 연령이 높았다.

다음으로 세 자녀 아버지들의 연령을 분석하였다. 세 자녀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40.61세로, 두 자녀 가정의 아버지(평균 나이= 40.41세)와 한 자녀 아버지(평균 나이= 37.01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2,2469)=113.01, p<.001$). Scheffe 검정 결과, 세 자녀를 둔 아버지는 한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이가 더 많았으나, 두 자녀 가정 아버지와 세 자녀 가정 아버지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세 자녀를 둔 부모는 한 자녀를 둔 부모보다 나이가 많았고, 두 자녀 집단과 세 자녀 집단은 부모의 나이로 볼 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질적 연구에 참여한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의 연령은 33~57세 사이였고, 30대가 5명, 40대가 8명, 50대가 2명이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43.46세로, 양적 연구의 대상자인 세 자녀 아버지의 평균 나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및 주거 환경

조사대상자의 조사구를 살펴본 결과, 세 자녀 가정의 78.5%는 ‘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한 자녀 가정은 88.0%가 ‘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였다. 또한 한 자녀 가정의 7.8%, 두 자녀 가정의 9.2%가 ‘읍’에 살고 있었는데, 세 자녀 가정은 이보다 더 많은 비율인(15.6%) ‘읍’에 거주하고 있었다($\chi^2(4, n=2,469)=15.94, p<.01$). 주택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62.5%가 자가 소유의 주거환경에 살고 있었는데, 한 자녀를 둔 가정은 이보다 더 낮은 비율인 45.1%를 기록하였다.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두 자녀를 둔 가정의 8.2%가 이에 해당하고, 세 자녀 가정은 11.7%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다. 교차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4, n=2,469)=70.44, p<.001$).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서울, 수도권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읍’ 또는 ‘면’에 거주하는 참여자가 없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주택 소유형태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양적 결과만 제공한다.

3. 교육 수준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30.1%가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두 자녀 어머니는 43.0%, 한 자녀를 둔 어머니는 52.2%가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교차분석 결과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 n=2,469)=40.40, p<.001$). 즉, 한 자녀 가

정 어머니들이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고(1/2 이상), 세 자녀 가정 어머니들이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비율이 가장 낮았다(1/3 미만). 그러나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세 자녀 어머니들은 고졸이 4명, 대학재학이 1명, 대졸이 9명, 그리고 대학원재학이 1명이었다. 따라서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1/3 이상)는 양적 연구 참여자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들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아버지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같은 교육 수준의 어머니 비율 보다 높았다. 나아가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이들의 46.9%가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한 자녀 아버지(62.0%), 두 자녀 아버지(56.2%)보다 더 낮은 비율이었다($\chi^2(2, n=2,469)=18.58, p<.001$). 반면 심층면접에 참여한 세 자녀 아버지들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 3명, 대졸이 6명, 대학원졸이 6명이었다.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아버지(4/5)는 어머니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양적 연구 참여자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4. 월평균 가구 소득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세 자녀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320.87만원으로, 한 자녀 가정의 평균(309.17만원)보다 많고, 두 자녀 가정의 평균 소득(329.32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F(2,2421)=4.48, p<.05$). Scheffe 검정 결과, 두 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한 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 자녀와 세 자녀, 두 자녀와 세 자녀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또 다시 항목으로 나누어보면, 한 자녀 가정의 31.8%, 두 자녀 가정의 30.7%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나타낸 반면, 세 자녀 가정의 가장 높은 비율인 32.4%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다($\chi^2(10, n=2,421)=25.76, p<.01$).

심층면접에 참여한 15명의 세 자녀 부모들의 경제 수준은 주관적으로 응답한 결과인데, 중상이 1명, 중이 5명, 중하가 7명, 하가 2명이었다. 즉 참여자의 대부분은 중간 수준의 경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하 수준의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관적 경제 수준은 중하에서 중간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월평균 지출액

월평균 가구 소득과 함께 월평균 가구당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세 자녀 가정은 월평균 249.8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한 자녀 가정(216.71만원)과 두 자녀 가정(245.75만원)의 월평균 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정결과, 세 자녀 가정의 월평균 지출액이 한 자녀 가정의 월평균 지출액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두 자녀 가정의 월평균 지출액이 한 자녀 가정의 월평균 지출액보다 컸다($F(2,2405)=22.63, p<.001$). 하지만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의 월평균 지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세 자녀 가정의 월평균 지출액에 대한 질문은 없었으나 대부분의 세 자녀 부모들은 한 자녀, 두 자녀일 때보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비가 더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하였다.

먹는 거나 뭐 생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둘에 하나 보태는 거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이 들어가요. (중략) 그러니까 딱히 교육비라기보다는 먹고 입는 게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 돈이 잡아요. 아이가 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밥을 또, 늦으면은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머리도 잘라야 되고,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 여드름 나면 피부과도 가야 되고, 어떤 애는 또 안경도 바꿔 줘야 되고, 그게 벌써 한 아이가 더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계산할 수 없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옷도 사줘야 되고, 양말, 속옷 뭐.. 거기다가 먹는 것도 둘이 먹는 것하고 셋이 먹는 것하고는 이게 양이 엄청나요.

6. 취업 상태

다자녀 가정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인 변수와 함께, 이들의 취업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 4-2>는 응답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종사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세 자녀 가정 어머니의 29.7%가 취업 중이고, 한 자녀 가정 어머니의 29.5% 또한 취업 중으로 나타나 이들 두 집단의 어머니들은 유사한 취업률을 보였다. 하지만 두 자녀 가정의 어머니는 38.4%의 취업률을 보여 다른 집단보다 취업 중인 어머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는 52.0%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한 자녀 가정 어머니의 비구직활동을 54.8%보다는 낮고, 두 자녀 어머니의 비구직활동을 46.3%보다는 높은 수치였다($\chi^2(4, n=2,469)=21.92, p<.001$). 심층면접에 참여한 15명의 어머니 중 12명이 전업주부로서 비구직활동 상태였다. 그들은 세 자녀 출산 후 양육을 위해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복직이나 재취업을 하기에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처음엔 제 의사가 아니었죠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말
길 데가 없었어요 애를 맡길 방법이 없어서 휴직을 했는데, 하다보니 복
직을 못한 거지. 그래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셋째 자녀까지) 쪽 전업주부
로 남아있지. 계속 사회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계속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애를 맡길 데가 없더라는 거. 결국은 셋째가
어느 정도 학교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다시 찾아야겠
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취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표 4-2〉 조사 대상자의 취업 여부 및 종사상 지위

	자녀수 구분						χ^2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		
	N	%	N	%	N	%	
어머니의 취업여부							21.92***
취업중	216	29.5	568	38.4	76	29.7	
비취업(구직활동)	115	15.7	227	15.3	47	18.4	
비취업(비구직활동)	401	54.8	686	46.3	133	52.0	
전체	732	100.0	1,481	100.0	256	100.0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21.42*
자영업자	29	13.5	109	19.4	17	23.0	
고용주	0	-	13	2.3	1	1.4	
무급가족봉사자	8	3.7	35	6.2	3	4.1	
상용근로자	126	58.6	275	48.8	28	37.8	
임시근로자	41	19.1	93	16.5	20	27.0	
일용근로자	11	5.1	38	6.7	5	6.8	
전체	215	100.0	563	100.0	74	100.0	
아버지의 취업여부							1.98
취업중	712	97.3	1,444	97.5	250	97.7	
비취업(구직활동)	13	1.8	22	1.5	2	0.8	
비취업(비구직활동)	7	1.0	15	1.0	4	1.6	
전체	732	100.0	1,481	100.0	256	100.0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22.03*
자영업자	142	20.3	368	25.8	76	31.1	
고용주	22	3.1	36	2.5	8	3.3	
무급가족봉사자	0	-	4	0.3	1	0.4	
상용근로자	492	70.2	927	65.1	138	56.6	
임시근로자	24	3.4	38	2.7	10	4.1	
일용근로자	21	3.0	51	3.6	11	4.5	
전체	701	100.0	1,424	100.0	244	100.0	

* $p < .05$, *** $p < .001$

취업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세 자녀를 둔 어머니는 37.8%가 상용근로자, 27.0%가 임시근로자, 23.0%가 자영업자였다. 이는 취업 중인 한 자녀 가정 어머니의 58.6%가 상용근로자이고, 두 자녀를 둔 어머니의 48.8%가 상용근로자인 수치보다 낮은 결과였다($\chi^2(10, n=852)=21.42, p<.05$). 반면 세 자녀 어머니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임시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질적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 중 3명만이 취업 상태였으며, 그들은 상용근로자(회사원), 임시근로자(시민단체 강사), 그리고 자영업자(남편의 사업 보조)로 구분되었다. 상용근로자인 어머니는 세 자녀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세 번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직장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어 감사하면서도 승진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휴직은 연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진급이나 이런 것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 스스로 아 이렇게 지금 몇 번째 쉬었는데 과연 내가 그 직급을 받아도 될까? 뭐 이런 것도 조금조금 걱정이 되고, 승진문제.. 아 내가 애가 셋이니까 뭐 그냥 조금 다니다가 힘들면 그냥 지가 알아서 나가서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
는.....제가 제 스스로 불편해지는 마음은 조금 있어요

임시근로자인 어머니의 경우 다자녀를 키우면서 재취업의 문턱이 높게만 느끼고 있을 때 아이와 함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서 독서와 토론, 정보교환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이 모임을 통해 사회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자녀 양육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공부해서 현재 어머니 대상의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막상 자신이 없는 거야, 다시 재취업 한다는 게. 애기를 낳으니까. 재취업을 하려면 뭔가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배우는 기간이 또 걸리니까 또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둘째 키우면서 아토피가 있어 책을 읽게 됐는데, 엄마들이 쓴 책인데 그 밑에 보니까 아토피를 공부하는 모임이 있대요 내가 애기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다보면 뭔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략) 이분들도 애를 키우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배우게 됐어요

한 어머니는 남편을 도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는 시대이나 친정부모의 도움으로 아이를 맡아 키워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시대와 친정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첫째 키우고 한 1년 정도는 (직장을) 다니다가, 또 둘째 임신하고는 안 다녔죠 네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둘째 낳고, 그래도 좀 저는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시할머니가 도움 많이 주셨고, 친정엄마도 많이 도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보러 가기도 수월하고요

세 자녀 어머니들 중에는 현재 비구직활동 중이지만 앞으로 직장에 취업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대학원 박사과정과 대학 학부과정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2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들은 남편과 자녀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없었다면 학업에 열중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어느 날 남편한테 내가 대학원을 가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하고 싶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려면 필요하다. 근데 남편이 흔쾌하게, 니가 (일을) 안 가면 우리가 돈이 반쪽으로 줄어드는데,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이 흔쾌하게 해라, 내가 도와줄게.. 지금 사실은 남편이 거의 살림과 육아

를 도맡아 해요 (중략) 애들이 이제 엄마는 공부하기 때문에 주중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관계를 맺고 이래도 아이들이 견뎌주고 그런 것이 있고, 남편도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고.

한편,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 모두 대다수의 아버지가 취업 중이었다(전체 97% 이상). 이중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는 상용근로자가 56.6%, 자영업이 31.1%였는데, 한 자녀 아버지는 상용근로자가 70.2%, 자영업 종사자가 20.3%였고, 두 자녀 아버지는 상용근로자가 65.1%, 자영업 종사자가 25.8%로 나타났다($\chi^2(10, n=1668)=22.03, p<.05$). 즉, 세 자녀 가정 아버지들만 보았을 때 이들의 절반 이상이 상용근로자(56.0%)였지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보면 자영업 비율이 높고,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았다. 또한 질적 연구에 참여한 세 자녀 아버지는 대부분 상용근로자이고,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각 1명씩으로 참여자 모두 취업 상태였다. 그들의 배우자 대부분은 전업주부로서 외벌이 가정에 해당되며, 다자녀로 인해 아내는 양육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정 경제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출산하고 회복한 다음에 아내가 일을 나가야지 경제적인 것으로 들어가는데, 연년생으로 낳은 저희 같은 경우는 회복한 다음에 둘째 낳고, 둘째 낳고 또 회복하려고 하면 셋째 낳으니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너무 들어가는 역량이 많이 크니까요. 부모로서 이제 아내는 아예 전담을 가사에 거의 하지 않으면 어, 힘들지 않나. 네 오히려 뭐 베이비시터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오히려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써의 왜, 책임감이 좀 마음에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2절 다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규범적 요소

기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소 및 결혼규범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4-3>에 제시되어있다. 한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을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비교해보았다(준거집단은 세 자녀 가정인 여성임). 본 연구에 쓰인 모델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가치관의 영향을 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양적 연구에서 다항로짓을 통해 어떠한 가치관이 다자녀 가정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세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양적분석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치규범, 출산규범, 양육규범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3〉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가치관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

	한 자녀 vs. 세 자녀			두 자녀 vs. 세 자녀		
	β	S.E.	승산비	β	S.E.	승산비
상수	8.464	1.426		4.471	1.248	
인구·사회학적 변수						
어머니의 만연령	-.019	.036	.981	.074*	.033	1.077
아버지의 만연령	-.108***	.032	.897	-.070*	.028	.933
지역(등=1)	.544*	.240	1.723	.293	.209	1.340
어머니의 교육수준(준거집단:대학이상) (고등학교졸업=1)	-.298	.231	.743	-.173	.211	.841
아버지의 교육수준(준거집단:대학이상) (고등학교졸업=1)	-.163	.227	.850	-.171	.203	.843
어머니의 취업 여부(준거집단:비취업) (취업중=1)	.501*	.199	1.651	.445*	.179	1.561
결혼규범 변수 (원가족의 영향) 가치규범						
어머니의 형제자매수	-.194*	.095	.823	-.050	.083	.951
아버지의 형제자매수	-.199*	.086	.819	-.144*	.073	.866
어머니의 형제자매서열(1:막내,10:장남)	.038	.086	1.039	.021	.074	1.022
아버지의 형제자매서열(1:막내,10:장남)	-.193*	.084	.825	-.232***	.073	.793
친정 부모님의 이혼·별거·재혼 경험 (준거집단: 경험없음) (있음=1)	-.397	.354	.672	-.129	.312	.879
어머니의 형제자매 중 이혼·별거·재혼 경험(준거집단: 경험없음) (있음=1)	-.348	.271	.706	-.443	.230	.642
아버지의 형제자매 중 이혼·별거·재혼 경험(준거집단: 경험없음) (있음=1)	-.258	.261	.773	-.523*	.228	.593
(자녀의 필요성) 출산규범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준거집단:반대) (찬성=1)	.395*	.179	1.484	.193	.161	1.213
양육규범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준거집단:공동) (어머니=1)	-.149	.258	.862	-.195	.236	.823
자녀 교육에 관한 결정(준거집단:공동) (어머니=1)	-.193	.241	.825	-.181	.220	.835
친정·시부모님께 자녀양육 도움 받은 경험(준거집단:경험없음) (있음=1)	.083	.261	1.086	-.108	.248	.898
df(사례수)	34(n=1,808)					
Likelihood Ratio	253.874***					
-2LL	3003.589					

* $p < .05$, *** $p < .001$

주: 1) 준거집단은 자녀가 세 명인 여성임.

2) 서열 변수는 역코딩한 결과임. 숫자가 높을수록 서열도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함.

위의 다항로지분석 결과 중 첫 번째 결과는 준거집단인 세 자녀 가정에 비해 한 자녀 가정일 가능성에 미치는 6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11개의 결혼규범 관련 요인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며, 두 번째 결과는 준거집단인 세 자녀 가정에 비해 두 자녀 가정일 가능성에 미치는 독립 변수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순차적으로 결과를 제시하기 보다는 세 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과 두 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먼저 비교하고, 결혼규범 관련 요인에 대해 비교 하겠다.

1. 인구·사회학적 특징 비교

먼저, 한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을 비교한 결과, 한 자녀 가정의 아버지보다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의 연령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1$). 세 자녀 가정이 한 자녀 가정에 비해 동에 거주하는 것보다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p<.05$). 이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세 자녀 가정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가 비취업 중인 경우가 한 자녀 가정보다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p<.05$). 이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비취업 중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으며, 비취업 중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어머니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은 경우일 수도 있다.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가 두 자녀 가정의 어머니보다 연령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p<.05$), 세 자녀 가정 아버지의 연령은 두 자녀 가정 아버지의 연령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p<.05$). 이 결과를 볼 때에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버지의 연령보다는 어머니의 가임연령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두 자녀 가정의 어머니가 두 자녀로 출산을 완결 지었을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서는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가 비취업 중인 경우가 두 자녀 가정의 어머니보다 더 많았다($p < .05$). 이는 한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을 비교한 결과와 동일하게 자녀가 많기 때문에 비취업 중일 가능성이 있으며, 비취업 중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어머니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은 경우일 수도 있다. 반면 지역,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2. 결혼규범 관련 요인 비교

가. 가치규범

한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의 가치규범 요인을 비교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제자매수가 한 자녀 보다는 세 자녀를 출산하는 데에 정적인 영향을 끼쳤다($p < .05$).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자녀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보다 형제자매수가 더 많았다($p < .05$). ANOVA 결과, 세 자녀 가정 어머니의 평균 형제자매수는 4.15명으로 한 자녀 가정 어머니의 형제자매수 3.43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세 자녀 가정 아버지의 평균 형제자매수는 4.03명으로 한 자녀 가정 3.40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성장 경험에서 형제자매 수가 더 많았던 경험이 다자녀를 가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층 면접 결과 형제자매수가 많은 세 자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셋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다자녀의 부모가 되어 더 기뻐했음을 드러낸 바 있었다.

저는 5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그리고 이제 시댁도 6남매고. 저희 남편은 이제 은근히 셋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알아요.

또한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의 형제자매 서열이 한 자녀 가정의 아버지 서열보다 더 높는데($p<.05$), 이 또한 아버지의 성장배경에서 장남이나 서열이 높아 느꼈던 경험이 다자녀를 가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녀의 특정성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다자녀 부모가 된 경우가 있었다. 즉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가 장남인 경우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딸만 둘이 있다는 게 부담이..” 되어 아들을 출산하고 싶은 마음에서 세 자녀를 갖게 되었다.

반면 어머니의 형제자매 서열, 친정부모의 이혼·별거·재혼 경험,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제자매 중 이혼·별거·재혼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의 가치규범 관련 요인을 비교하였다. 세 자녀 가정 아버지의 총 형제자매수($M=4.03$, $SD=1.53$)가 두 자녀 가정 아버지의 형제자매수($M=3.88$, $SD=1.51$)보다 더 많았으며 ($p<.05$), 형제자매 서열도 세 자녀 가정 아버지가 두 자녀 가정 아버지보다 높았다($p<.001$). 이는 아버지의 성장배경에서 형제자매로 인한 경험이 자녀를 많이 낳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가족이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가 두 자녀 가정의 아버지보다 형제자매가 이혼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반면 어머니의 형제자매수와 형제자매서열, 친정부모의 이혼·별거·재혼 경험, 어머니의 형제자매 중 이혼·별거·재혼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친정부모의 별거로 인해 자신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었다. 심층 면접에 참여했던 한 어머니는 친정부모의 별거로 집을 나간 어머니 때문에 무능력한 친정아버지를 힘겹게 모시고 살아야 했던 만큼, 자신은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많이 능력이 없으셨고요. 몸이 많이 약하셔서 생활력이 없으셔서 부양을 잘 안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상대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고 어머니는 일을 하니, 머리를 하셨어요. 저희 딸 돌이있거든요. 부양을 하시면서 살림을 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화투도 하시고, 엄마도 때리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못 견디신 거죠. 그래서 저 어릴 때, 2학년 때 집을 나가셨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물론 아버지하고 그랬다는 건 알지만 엄마한테 그게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제가 이해 못하니까, 그냥 엄마가 날 버리고 갔구나, 그런 생각만 있었죠. 저는 우리 엄마처럼은 안 하겠다. 그리고 내 아이한테만은 내가 그런 상처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나. 출산규범

출산규범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 자녀 가정보다 많았다($p < .05$). 이는 자녀를 많이 키워본 경험에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확률일 수도 있으며,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을 확률도 있다.

<표 4-4>는 본 연구에서 출산규범으로 정의한 '결혼해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녀가 필요하다고

한 비율과 자녀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한 자녀 가정보다는 두 자녀 가정이, 두 자녀 가정보다는 세 자녀 가정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 자녀 가정 중 59.5%가 자녀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0.5%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자녀 가정은 56.6%가 자녀가 불필요하다고 하였고, 43.4%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자녀 가정은 50.2%가 자녀가 불필요하다고 하였으며, 49.8%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기혼 여성임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자녀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과반수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4-4〉 '결혼해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 동의 정도 집단 간 차이 비교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	전체	χ^2
자녀 필요성 동의 여부					6.79*
자녀 불필요함	433 (59.5%)	834 (56.6%)	128 (50.2%)	1,395 (56.8%)	
자녀 필요함	295 (40.5%)	640 (43.4%)	127 (49.8%)	1,062 (43.2%)	
전체	728 (100.0%)	1,474 (100.0%)	255 (100.0%)	2,457 (100.0%)	

* $p < .05$

질적 연구에서 세 자녀 부모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그들은 자녀에게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먼저, 부모가 생각하는 다자녀란 부모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로서 삶의 원천이고 진정한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저의 삶을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저의 삶의 근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략)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내가 나를 계속 공부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먹게 하고 하는 기반이 나는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의 거울인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제 모습을 봐요.

저 나름대로는 셋째가 생겼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 더 도움을 받고 오히려 그랬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엄마도 더 성숙해가고. 둘만 키웠으면 몰랐을 법한 일들을 셋째를 키움으로써 이제 제가 배운 게 또 많고.

두 번째로, 다자녀 가정에서 자녀는 부부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견디게 해 주고 부부를 이어주는 끈으로 작용하며, 형제자매 간에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며 가족구성원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고, 다자녀로 인해 밝고 건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애가 하나였다면, 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막 아빠가 이제 어렵고 힘들게 되면 부부 싸움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좋았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살면서 정말 서운한 그런 것들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 그래? 너랑 안 살면 그만이지, 제 아들이야 뭐 하나 못 살리겠어? 이런 생각도 가질거고.. 근데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저 셋, 저것들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아이 키우면 이제 집안에 그러니까 웃음이 떠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이렇게 웃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막 집안이 막 왁자지껄해요, 막. 그래서 아 애한테서 서운한 거 애한테서 이렇게 위로를 얻고, 서로 이렇게, 자녀가 많으니까.

세 번째로, 다자녀 부모는 최근의 저출산에 따른 한국의 걱정스러운 미래를 고려해 볼 때, 다자녀는 결코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닌 국가 공공의 자녀로서 광의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봐도 지금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계속 되면 결국은 나중에 경제, 경제활동 인구 숫자가 줄어들면 내 연금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앞으로 일을 생각해보면 걱정스럽긴 해요. 뭔가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뭔가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져야지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존재하겠구나, 이대로 가면 결국은 외국에서 이민 받아서 겨우 겨우 인구 채워가고 그러다보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언젠가는 국제사회에서 이름, 명함도 못 내미는 조그만 나라가 되는 거죠.

다. 양육규범

양적 분석 결과, 양육규범과 관련한 요인은 다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질적 분석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 자녀 교육에 관한 결정, 그리고 자녀 양육에 도움 받은 경험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세 자녀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자녀 간에 터울이 적은 경우에는 돌봄의 손길이 더 많이 요구되므로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는 산후 우울증과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였다. 세 자녀 아버지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지만, 퇴근 후 잠시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한 번씩 산후 우울증으로 약간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아직 (셋째가) 6개월이라. 이게 한 번씩만, 제가 스트레스 그런 것만 이렇게 풍선, 공에 막 가득 빵빵하게 찼다가 한 번씩 빵 터질 때가 있어요 터지고 나면 한 몇 개월 가요. 그래 또 한 번 팍 차면 또 한 번 탁 터져요.

셋째 아이가 이쁘긴 이쁜데.. 키우기가 좀 차이가 나면 좋은데, 저희는 다 빼약빼약. 둘째도 이제 기저귀 땀어요, 둘째 남아아이도 정말 너무 키우기 힘든 거.. 이번 해에 5월이 이제 5년차예요. 결혼하고 나서 밤새 꼴딱 이렇게 밤새 깊이 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계속 아이 있고, 막 그래서.

저는 바빠서 잘 신경을 못 써줘요. 집에 가면 전쟁터예요. 흔히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 말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애 안고 있고요, 업거나 안고,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둘째 똥 못 가릴 땐 똥 싸러 화장실 데리고 갔다 와야 되고, 쉬 싸러 데리러 갔다 와야 되고, 첫째 난장판 치면 말리고, 아 제 옆에 아내는 이제 살림해야 되니까 음식 만들어야 되고, 집에서 뭐.. 피곤해요. 아무래도 사람이 육체니까요, 육체적으로 한계를 좀 맞이하는 것 같아요.

세 자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어머니들이었으며, 아버지 역시 자녀의 부족한 학습적인 면을 도와주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등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 교육에 관여하고 있었다. 세 자녀 부모의 자녀 교육에 있어 자녀 순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부모들은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 공부에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시킨 것에 비해, 셋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욕심이 아닌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점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세 딸을 둔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 똑똑하고 유능한 딸로 키우고 싶어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었다.

제가 만약에 애만(셋째) 하나 있다 그러면 정말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애를 바로 잡으려고 기를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두 아이를 길러 보니까 셋째 애는 아,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공부에도 전혀 흥미가 없지만 다른 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부모

가 부모 욕심 채우려고 계속 공부, 공부, 이렇게만 해라 그랬을. 근데 막 내는 조금 달라요. 이제 저희 남편도 굉장히 교육에 관여를 했어요. 이제 셋째 아이도 아빠가 많이 그쪽(공부)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막내 애가 정말 가치 있는 장점을 살려줘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그냥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좀 잘 하면서 다져야지 그게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니까 공부는 중요해 하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 플러스 니가 잘 해야 이 엄마가 좀.. 좀 위신이 서지 않나? 그런 게 큰 애(딸)한테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면 솔직히 남편의 눈치가 좀 봐져요.

세 자녀 가정에서는 첫째와 둘째 자녀의 양육은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의 도움을 받았지만, 셋째 자녀의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들의 연세가 높아지면서 부모에게 자신의 산후조리뿐 아니라 자녀 양육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첫 아이를 딸이이를 낳았잖아요. 딸이이를 낳았는데, 애기가 너무나 울어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을 집에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잠을 못 잘까봐, 차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견고, 밤새도록 다니고, 저희 남편이 차에 태워서 다니고, 엄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교대로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맏딸이다 보니까 친정엄마가 아무래도 젊으셔서 그 산후조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 주셨어요.

결혼하고도 헤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야. 제 입장에서. 셋째 때는 나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싶어갖고 나는 내 몸을 아는데, 애를 낳고도 사후가 더 힘들어, 몸이 더 아프고 막 이

런 스타일이라, 그런데서(산후조리원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 또 엄만 막 얘기 밤새도록 잠 안자고 새벽에 잠 안자고 이러는데 엄마한테 그거는 (세 번째 도움은) 더 안 좋은 것 같아.

지금까지 제시된 세 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출산 및 양육 규범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세 자녀 아버지의 연령이 높고, 어머니가 비취업 상태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자매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자매 서열이 높은 경에 다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 자녀 부모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자녀로 인해 부모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을 화목하게 연결해 주고 있으며,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의미에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규범과 관련한 요인은 다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주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셋째 자녀의 양육에 친정 및 시부모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음을 밝혔다.

제3절 다자녀 가정의 다출산 경험 과정

첫째·둘째 자녀를 키우며 추가로 셋째 자녀를 출산하여 다자녀 부모가 된 가정들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이 네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256명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다출산을 경험했는지 살펴보고자 이상자녀수, 실제자녀수, 이상자녀수 딸/이들 구별 여부, 이상자녀수(아들 수), 이상자녀수(딸 수)의 다섯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다자녀 가정을 구분하였다.

<표 4-5> 다자녀 가정의 구분 (n=225)

㉠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 (n=83) [이상자녀수≥3, 실자녀수=3]		㉡ 다자녀를 원치 않은 가정 (n=142) [이상자녀수=2, 실자녀수=3]	
A. 성별 선호 없음 (n=42)	B. 성별 선호 있음 (n=37)	C. 성별 선호 없음 (n=96)	D. 성별 선호 있음 (n=43)
자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자녀수를 응답한 값을 나타내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무응답이 4명이었음.		자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자녀수를 응답한 값을 나타내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무응답이 3명이었음.	

주: 전체 256명의 응답자중에서 3명은 이상자녀수가 0이라고 응답하였고, 23명은 이상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명은 이상자녀수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이들 총 31명의 응답자들은 <표 4-5>의 구분에서 제외되었음.

1. 집단 ㉠: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

먼저 상위 개념인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 집단 ㉠과 원하지 않은 가정인 집단 ㉡중 집단 ㉠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일부인 256명의 세 자녀 어머니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1/3인 83명은 세 자녀 이상을 바람직한 자녀수라고 생각하였다. 즉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다자녀를 원하였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많은 자녀를 원했기에 다출산을 한 이들을 집단 ㉠로 분류하였다. 이들을 상대로 형제자매에 대한 생각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6>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더 좋다는 문항과,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는 문항에 대하여 대다수가 동의하였다(각각 91.6%, 96.4%임). 반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항목에는 56.6%가 찬성하였다. 즉, 나머지 43.4%의 다자녀 어머니는 대를 잇기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표 4-6〉 형제자매에 대한 생각 및 자녀에 대한 태도

구분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더 좋다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찬성	76 (91.6%)	80 (96.4%)	47 (56.6%)
반대	7 (8.4%)	3 (3.6%)	36 (43.4%)
전체	83 (100.0%)	83 (100.0%)	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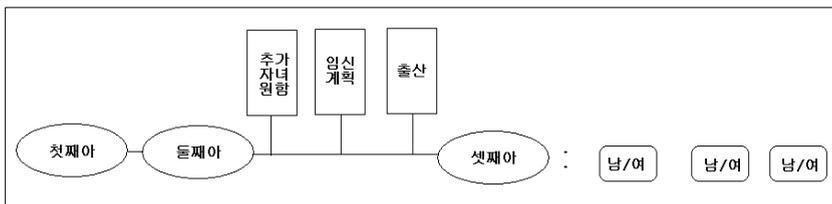
주: 이상 자녀수가 세 자녀 이상인 경우만 분석하였음 (n=83).

다자녀를 위하여 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성별선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성별선호가 없었던 응답자가 42명, 성별선호도가 있었던 응답자가 37명으로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가. 집단 ㉠-A: 성별선호가 없이 다자녀를 원한 가정

성별선호도가 없는 집단(n=42)은 [그림 4-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녀 성별에 구분 없이 자녀가 많은 것을 선호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집단 ㉠-A: 성별선호가 없이 다자녀를 원한 가정



성별과 상관없이 많은 자녀를 원했던 다자녀 가정에 관한 결과는 질적 자료에서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부모 중 일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본인이 외동으로 자랐거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터울이 많이 있거나 형제자매간 사이가

친밀하지 않았던 성장배경이 있었고, 부부 모두 또는 남편이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 후 많은 자녀를 원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를 4~5명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자녀를 원했던 부모는 둘째 자녀까지 아들 2명 또는 1명이 있어,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셋째 자녀를 위해서 출산하였다.

저하고 누나하고 단 둘이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한 6년 차이 나거든요. 너무 외로운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누난 고등학교 다니고, 제가 고등학교 갈 땐 누나는 이미 사회인이나 집에서 볼 일도 거의 없고, 네 그래서 거의 혼자 사는 느낌이 강했어요. (중략) 남자라서 그런지 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심 하고 있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4명 낳고 싶었는데..

두 명은 너무 적고 셋, 넷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다섯 명 이상 정도면 다자녀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우리 둘이서 남편과 저랑은 다섯 낳자, 못 낳아도 애들을 되게 좋아했고요. 남편도 아이가 많은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부부 모두가 아이를 좋아해서 다자녀를 갖기로 계획한 이들도 최종출산을 셋째까지로 한정짓게 되었다. 다자녀를 원했던 어머니는 세 번의 계속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신체적 허약함을 느끼게 되었고, 셋째 자녀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결국 부모의 스트레스, 임신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부 합의 하에 더 이상의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하였다.

남편은 또 많이 원하고, 그러면은 한번 낳아볼까? 이런 생각 들어서 이제 생긴 아이거든요. (중략) 지금도 (남편은) 원래 자식 욕심이 많아요. 지

금도 제 입에서 오케이만 떨어지면 넷째도 좋고 다섯째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몸이 너무. 이제 더 이상의 임신은 제가 너무 완강히 거부를 하니깐 그렇지, 지금도 막 가만히 가끔씩 얘기하는 것 보면 막 다섯까지도 낳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셋째는 제가 장애아를 낳았어요. 정신지체 1급이고. (중략) 몸은 괜찮은데 그게 이제 뭐, 다운증후군인데, 이게 염색체 이상이고 돌연변이기 때문에 무슨.. 부모가 임신 중에 어떤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해도 어떤 영향은 있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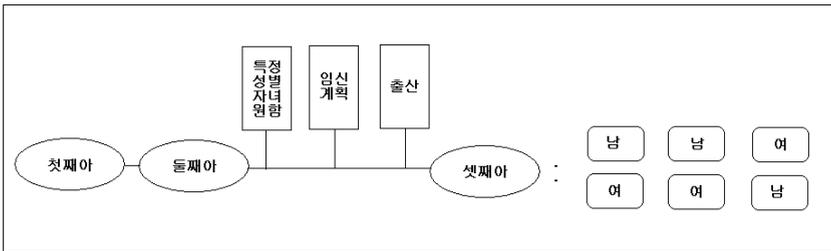
셋째를 가질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둘째까지 보다가, 나이들도 있고 하나까 포기하자 그랬는데 막 애가 들어섰던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신생아 때, 태어나고 데리고 왔는데 일주일 안에 굉장히 뭐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신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기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 약물이 만약에 안 들으면 애는 평생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걸까, (중략) 더 낳으면 우리 때문에 아이가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제 들었어요.

나. 집단 ㉠-B: 성별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한 가정

위에서 다자녀 출산을 원했고, 성별 선호도가 없었던 이들을 살펴보면, 집단 ㉠-B에 해당하는 이들은 셋째 자녀 출산에 있어서 특정성별의 자녀를 원했던 이들이다(n=37). 이들 중에는 남자아이만 셋, 혹은 여자아이만 셋을 출산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었고, 아들과 딸을 모두 갖고 싶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가정은 첫째아와 둘째아의 성별이 같아서(아들-아들 혹은 딸-딸 인 경우) 셋째 자녀는 다른 성별의 자녀를 출산하기를 희망하였다. 물론 희망과는 달리, 아들 셋 또는 딸 셋을 낳

게 되는 가정도 있지만 출산 의도면에서는 셋째 자녀의 성별에 대해 선호도가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4-2] 집단 ㉠-B: 성별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한 가정



흥미로운 점은 다자녀를 원한 전체 가정 집단 ㉠ (n=83)중에 첫째-둘째 자녀의 성별이 남-남인 경우는 18.0%이고, 여-여인 경우는 41.2%로 후자가 더 많았다. 집단 ㉠-B 중에서도 첫째-둘째 자녀의 성별이 남-남인 경우는 21.6%이고, 여-여인 경우는 45.9%로 후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양적 데이터에서는 이들의 출산의도와 임신 계획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질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자녀를 원했고 동시에 특정성별의 셋째 출산을 희망했던 이들은 모두 첫째와 둘째가 딸이었고 이어서 셋째로 아들을 낳기를 원한 경우였다. 즉, 본 연구에 참가한 응답자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아들이어 셋째는 꼭 딸을 낳고자 노력한 이는 없었으므로, [그림 4-2]에 나타난 예시 중에서도 셋째로 아들을 낳고자 노력한 이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이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질적 자료에서 자세히 나타나있다. 두 딸을 둔 어머니의 경우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집안의 다른 손자나 증손자를 유난히 예뻐하는 시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낳으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

들여 아들을 기대하면서 셋째 임신을 계획하게 되었다. 또 어떤 어머니의 경우는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한 딸의 모습을 측은하게 여겨 셋째 자녀를 갖도록 권유받게 되었다. 심지어 동네에서 작은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너는 아들이라도 있냐?”라며 싸우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의 전후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두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자녀는 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첫째·둘째 자녀가 딸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 시댁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싶어 했다. 결과적으로 딸만 둘을 둔 어머니들은 아들 출산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설득시켜 마지막 기회로 세 번째 임신을 시도하였다. 셋째 자녀로 아들을 낳으면 좋은 것이고, 딸이어도 더 이상 임신을 계획하지 않기로 부부 간에 합의를 보았다.

은근히. 부모님보다 할머니로부터 부담감을 느낀 거 같아요. (중략) 저 그냥. 사촌(남자)이지만 그 놈 하나 잘 키워서 그놈을 장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집사람한테는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고나서 결정하는 과정까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완고하더라구요. 셋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둘만 낳고 끝내려고, 아들이든 딸이든 둘만 낳고 끝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그 집사람한테는 이제 무언의 압력 비슷한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장모 쪽에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남자 집안의 그. 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으로써는 남자 애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자꾸 하신 것 같고 (중략) 정말 니가 원한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더 낳고 이제 끝내자 라고 해서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걸로 끝을 봤어요.

집단 ㉠-B는 특정성별을 원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셋째 임신을 계획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임신 계획은 음식 및 체중 조절, 체질 개선과 같은 물리적인 계획이 아니라, 특정성별을 위해 추가 출산을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도한 임신을 위해 실천했던 구체적 내용이나 셋째를 임신하면 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근거제시에 있어서 비과학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대대로 남자가 많은 집안”이기에 이번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둘째 자녀와 5~7년 정도로 터울이 길면 다른 성별의 자녀를 임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딸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들도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터울을 길게 하면 성별이 바뀔 확률도 높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아, 낳아야 되겠다 언젠간 하나를 더 낳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생각(셋째 임신)을 하고 있었죠

저희 집안이 대대로 남자가 많은 집안이에요 (중략)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해보고 딸이면 진짜 포기하고 아들이면 좋은 거다 해서 셋째를 갖게 된 거구요 그래서 텀이 5살보다 많이 나요.

지금까지 집단 ㉠-B에서 왜 셋째아를 아들로 원하였는지의 이유와 임신 계획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셋째로 아들을 출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임신 과정에서 셋째 자녀가 특정한 성별을 타고 나갈 희망했을지라도, 실제로 그러한 출산을 하게 될 확률은 50%이다. 먼저 아들에 대한 기대로 셋째 임신을 계획했던 부부가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셋째 출산으로 커다란 기쁨을 경험하였다. 셋째 자녀가 남아로 태어남으로 인해 부모뿐 아니라 시댁과 친정부모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낳은 자신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였다.

아버님이 이제 확연히 달라지셨다, 그야말로 딸 둘이 있을 때는 개네들 분유도 한 통 안사시던 분이 아들 낳았다고 하니까 분유를 사들고 오시고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그 녀석을 자꾸 괜히 이렇게 계속 케어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리도 막 주변에서 너무 좋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아들을 안 낳으면 예, 큰일날 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너무 기뻐라 하시니까 저도 네 약간 기분은 좋았죠.

반면, 아들을 낳고자 임신을 계획했지만 딸을 낳게 된 경우에는 남편과 시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모두가 낙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임신 기간 동안 산전관리의 하나인 양수검사를 통해 여아라는 사실을 듣고 난 후 인공유산을 하지는 남편의 말에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힘겹게 임신을 유지했다고 회상하였다. 딸 셋 다음에는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비과학적인 믿음에서 넷째를 임신하라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어머니는 더 이상의 임신은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했다. 어머니는 세 명의 딸을 키우면서 시부모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세 딸이 있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시부모님이 (손자들) 원하는 거니까. 그런 (아들 낳을) 책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셋을 낳아 봐서 딸이면 더 이상은 뭐 내가 할 뉘는 다 한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는 더 낳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애기 아빠는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낳지 말자는 거예요. 저한테. 임신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임신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셋째를 가져서 양수검사를 했는데 이제 딸이라는 걸 안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처 많이 받고, 셋째 가졌을 때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이 애가 태어나서 어떤 애가 될 질 모르는데 쉽게 그런 소릴 한다는 게

전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안하고 그냥 무조건 낳아봐서 내 책임만 다하자 이런 생각을 생각했지.

셋째가 딸이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많이 실망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이제 넷째면 아들이더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나 넷째를 낳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 네 그랬었죠.

저는 만족해요. 대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그런데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만, 저는 속으론 정말 만족해요. 딸 셋인데. 전 아들이 별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봐도, 지켜봐도 그렇고, 저한테는 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딸한테, 저희 딸들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저는, 저는 만족해요.

2. 집단 ㉠: 다자녀를 원치 않은 가정

지금까지 집단 ㉠을 통해 다자녀를 원해서 다출산을 한 가정을 집단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셋째 자녀를 원치 않았는데 다자녀 가정을 이루게 된 이들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이용해 희망자녀수는 둘이었으나, 셋 이상을 출산하게 된 응답자 142명(집단 ㉠)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셋째 출산을 원하지 않았던 집단으로 분류한 이유는 희망자녀수는 두 명, 실제자녀수는 세 명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집단 ㉠의 특징은 응답자들이 추가 출산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을 하였는데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가족계획을 실천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두 번의 출산 경험이 있고, 가임연령에 있는 기혼자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둘째 출산 후 피임을 하였는지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현재 피임여부는

제공하기에, 이를 토대로 둘째 출산 후 피임여부를 유추해 보기로 한다. <표 4-7>은 집단 ㉠과 전체 세 자녀 가정의 피임 여부를 분석한 결과인데, 이 두 집단은 피임여부에서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셋째를 출산 한 후 62.4%가 피임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7.6%에 주목하였다. 이미 희망자녀수보다 실제 자녀수가 한 명 더 많은 이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추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자녀 이후에도 피임을 하지 않는 이들이 1/3이 넘는 <표 4-7>의 수치를 본다면, 둘째 자녀 출산 이후에도 피임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4-7> 집단 ㉠과 전체 다자녀 가정의 피임 실태

		집단 ㉠ (셋째를 원치 않았던 집단)		다자녀 가정전체	
		귀하와 남편은 현재 피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피임중)	88 (62.4%)	피임이유로 85명이 (96.6%) 추가출산을 원치 않아서라고 함
	아니오 (피임 안함)	53 (37.6%)	-	95 (37.4%)	-
	전체	141 (100%)		254 (100%)	

주: 집단 ㉠의 총 수는 142이나 무응답 1명 있음.
다자녀 가정 전체의 총 합은 256이나 무응답 2명 있음.

즉, 추가 자녀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피임을 안하거나 피임에 실패하면 계획 없던 임신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적용해 보면 256명의 응답자 중 피임을 하지 않은 이가 37.4%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셋째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임신을 한 이상 이를 중단하지 않고 유지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 ㉠에 해당하는 이들이 셋째 출산 전에 인공

유산 경험을 하였는지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에서는 집단 ㉠의 90.7%(n=127)가 셋째아 출산 전에 인공유산 횟수가 없다고 하여 거의 대다수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인공유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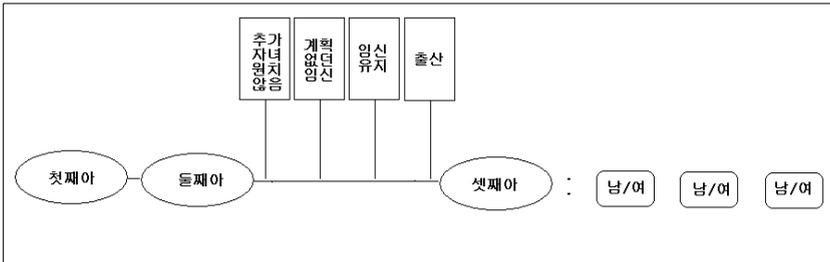
	집단 ㉠ 셋째아 출산 전 인공유산 경험	전체 세 자녀 가정 셋째아 출산 전 인공유산 경험
경험 있음	13(9.3%)	16(6.3%)
경험 없음	127(90.7%)	237(93.7%)
전체	140	253

주: 집단 ㉠의 총응답자수는 142인데 무응답 2명 있음. 전체 세자녀 가정의 수는 256인데 무응답 3명 있음.

가. 집단 ㉠-C: 성별과 관계없이 다자녀를 원하지 않은 가정

집단 ㉠은 또다시 성별 선호가 있었던 이들과 성별 선호가 없었던 이들로 나뉘는데, [그림 4-3]에서는 성별 선호가 없었던 이들의 세 자녀 출산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셋째아가 남아이건 여아이건 관계없이 추가 출산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셋째의 임신이 매우 당황스럽고 유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림 4-3] 집단 ㉠-C: 성별과 관계없이 다자녀를 원하지 않은 가정



계획 없던 임신과 임신 유지에 관한 변수는 양적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나, 질적 자료에서 보완하여 집단 ④-C에 대한 설명을 완성하였다. 그 과정을 질적 결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추가 자녀를 원치 않음

다자녀를 둔 부모의 희망 자녀수는 2명이었다. 자녀가 1명이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굳이 아들, 딸에 대한 성별 보다는 “남들도 다.....”, “사회적 통념상” 2명의 자녀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결혼하면서 부부의 의견을 모아 자녀계획을 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자녀수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그들은 둘째까지 낳고 나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더 이상의 출산을 원하지 않고 두 명이 적당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즉 이들은 셋째아가 특정 성별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자녀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앞으로 세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며, 둘째까지는 남 기르는데 그냥 기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셋째를 낳게 되니까 어.. 이제 정말 애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두 명이 좋다, 세 명이 좋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사실 해 보질 못했는데, 막연하게 그래도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사실 너무나 많이 접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문구 자체가.

그냥 뭐 통상적으로 둘은 다 낳고 (중략) 그런데 이제 그냥 둘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냥 애는 둘쯤은 낳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2) 피임을 하지 않음

다자녀 부모 중 대부분은 부부 간에 셋째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들은 둘째 자녀를 키우면서 셋째 자녀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임을 계획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음을 밝혔다.

제가 또 애가 잘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딱히 그렇게 뭐 (피임을) 하면서 가진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또 낳게 되고.

이렇게 한 번 자면 애가 생기더라고 너무 신기하죠? 낳자도 이렇게 어찌다 한번 (부부관계를) 하니까 그건(임신여부를) 알잖아요 그래도 낳자를 보면서 이렇게(피임을) 하질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애가 생기더라고 바로바로 진짜로.

3) 피임이 실패함

둘째 자녀를 낳고 추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부부는 피임을 했는데 임신이 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남편의 영구적인 피임으로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한 부부에게 임신 소식은 잠시나마 부부간에 의심과 오해로 마음 불편한 가운데 임신을 유지했다고 하였다.

둘째 낳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이는. 그래서 둘이 그때는 얘기가 되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래서 남편 정관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남편도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 남편도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때 한참 바쁜 일이 많아서 이거 딱 끝나고 하자, 끝내놓고 하자 했는데, 어.. 신경을 썼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울렁울렁거리고 막 남편이 채했다, 막 낳자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아이가 생길 나이가 아니 거예요, 기간이.. 병원

에 갔는데 근데 제가 생리를 끝난 지 딱 일주일 밖에 안됐을 때 간 거예요 근데 초음파를 보니까 아기집이 있는 거예요 왔는데 남편이 아니지? 아니지? 그래요 근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정관수술 했는데, 그것을 그냥 한번 수술 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몇 개월은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 근데 그 관리를 안 한 게 남아있는 바람에 생긴 게 셋째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는 일단 신랑이 자기는 수술을 했는데 이놈의 마누라가.....오해를 샀어요, 의심을. 그래서 낳아보면 알 것 아니냐, 결론은 그거죠

4) 계획 없던 임신으로 당황함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던 부부에게 있어 셋째 임신은 둘째 자녀를 출산한 후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여길 만큼 임신반응에 둔감하였고, 계획하지 않은 셋째 임신에 대해 무척이나 당황하고 부담스러워했으며 철없는 행동이었음을 표현하였다. 친정부모나 시부모는 셋째를 임신한 딸, 며느리가 앞으로 힘겨운 육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자인가봐”, “셋을 어떻게 키우려고”라는 반응에 창피함을 느꼈고, 이러한 세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막내를 임신해서 제가 하혈을 했던건데, 저는 그게 그냥 아기가 둘째를 낳고 나니까 생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5개월이 되도록 몰랐어요 세 번째 임신을 하고 나서야 해.. 큰일났다 싶은 거예요

셋째를 계획 없이 낳았죠 그러니까 둘째가 7개월 때 생겼거든요 한창 키우기 바빴을 때, 그때 덜컥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계획 없이, 셋째를 낳아볼까 라는 생각도 없이.. 그렇게 셋째가 생겼고

계획에 없던 일이라서 당황스러웠었고, 또 음, 우리 이제 애 아빠도 혼자 서울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애들을 셋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가장으로서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을 했을 당시에는 ‘넌 니 생각 안하니?’ 오히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저희 외가,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다 두 분 다 뜬해 하셨거든요. 셋째를 낳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돈 많다고 그러지요.

무식하다고. 지금은 좀 연예인들 엄청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는 사람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맨날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5) 인공 유산을 고민함

임신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는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임신이었고, 두 번째는 “남들도 다.. 하나는 외로우니까”라는 이유로 지지받을 수 있는 무난한 임신이었지만, 세 번째는 임신을 확인한 후에는 출산에 대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계획 없던 셋째를 임신한 부부는 임신 소식을 듣고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 인공유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몇 일 동안 고민에 빠졌다. 그들에게 있어 이러한 고민은 첫째와 둘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동안 고민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 나쁜 마음인데 정말 셋째 아이를 안 낳을 생각까지 했었어요. 남편하고 일주일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트러블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반응은 아이 정서에 안 좋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냥.

그때는 정말 일주일을 넘게 거의 매일 울었어요,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한테 계속 이거(임신)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제 이거(아이)를 낳아야 되냐 낳지 말아야 되냐 여기까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남편도요, 셋째가 있다고 하니까 고민하더라고요 되게 좀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 올바른 사람인데 둘째까지는 되게 좋아했어 그런대로 근데 셋째까지라고 하니까 일주일을 고민하더라. 고민한다는 건 뭐예요? 안 낳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좀 고민하더라고 우리가 막 형편이 여유롭고 이렇지는 않죠. 부담감, 무게감이 더 커지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시택도 있지. 셋째 태어나면 아무래도 둘째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많은 경우에 있어 셋째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 출산 여부를 두고 갈등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임신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정부모의 격려와 조언에 따라 출산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셋째도 사실 우연히 생겼는데,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어.. 남편하고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가, 결국엔 제가 남편 설득에 넘어가서 셋째까지 낳자 이렇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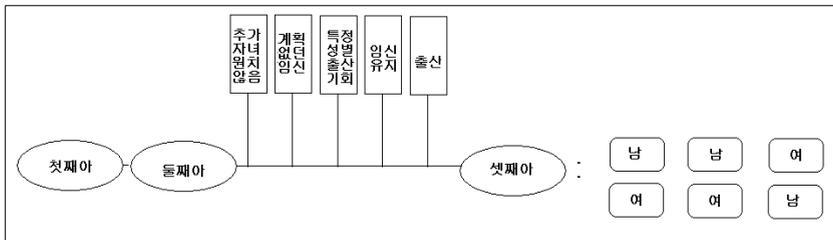
제가 계속 남편한테 생각해 보라고 일주일 넘게 서로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낳지 말자고 결론을 내서 당신한테 그러면 애를 떼자 하면 당신은 뭘 거냐고 어차피 생긴 아이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자고.

저희 남편이 친정어머니랑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다 지 먹을 것 타고 난다고 엄마는 그랬고, 저희 남편은 이제 은근히 셋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 집단 ㉠-D: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나 셋째 출산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선호하게 된 가정

지금까지 집단 ㉠-C인 성별과 관계없이 다자녀를 원하지 않은 가정의 다출산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지만, 임신을 하게 된 이상 특정성별을 선호하게 된 경우를 기술하기로 한다. 이들은 [그림 4-4]에 나타나 있다. <표 4-5>에 의하면 집단 ㉠-D에 해당하는 이들은 43명으로 성별 선호도가 없는 사람의 절반 정도였다. 이들이 가족계획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및 자녀 성별을 분석해 본 결과 전원이 아들 1명, 딸 1명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첫째-둘째 자녀가 서열에 관계없이 1남 1녀인 경우는 32%였고 나머지는 모두 아들 둘 혹은 딸 둘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림 4-4] 집단 ㉠-D: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나, 셋째 출산과 관련하여 특정성별을 선호하게 된 가정



집단 ㉠-C와 달리 집단 ㉠-D의 특징은 셋째 임신을 한 이상 특정성별을 낳고자 희망하였다는 점이다. 질적 연구결과에서는 이미 아들 둘을 출산하여 셋째는 꼭 딸을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은 발견할 수 없었고, 이미 딸 둘을 출산하여 셋째는 꼭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경우만이 조사되었다.

1) 아들 낳을 기회로 삼음

원치 않는 셋째를 가지게 되기는 하였지만 위로 두 딸을 가졌거나 둘째·셋째 간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경우는 셋째가 아들이길 바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산전 진찰에서 딸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출산 당시까지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둘을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아들에 대한 욕심 별로 없었어요. 애 아빠는 굉장히 아들에 대한 그거 굉장히 강한 편이었죠. 자기도 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른들은 좋아하셨어요.

이제 아들이나 아니냐가 상당히 좀 예민했었어요. 그런데 애가 딸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 뱃속에서 성별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알았었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도 아들을 기대하고, 친정에서도 아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 딸이겠구나 하면서도 아.. 아들이지 않을까? 혹시 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마지막까지 낳았는데,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주변이 조용한 거예요. 애 아빠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애 아빠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자애, 딸이라고.

2) 임신 유지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셋째를 임신한 대부분의 부모는 임신 중단과 임신 유지 사이에서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양적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참여자들 중에 셋째를 낳지 않으려고 인공유산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태내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아기가 큰 상태였고, 종교적으로 인공유산이라는

죄를 짓는 것이 큰 잘못 같아 어머니 스스로 출산을 결정하기로 했다. 셋째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 첫째와 둘째 임신과는 달리 남편과 함께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 등 태교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였다.

애기를 계획에 없었는데. 그랬더니 너무 놀래갔고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애기를 해주시는데, 아들이라서 반가운 게 아니라, 아들이 것까지 알 정도가 됐으니 이젠 이제 절대적으로 낳아야 된다는.. 성별까지 이제 다 돼있고,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다 갖추어진건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낳아야 되는데.. 아 이제 걱정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종교가 있어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많이 저를 다독거리면서 노력을 했었고요.

반면 원치 않는 임신이었지만 추가 출산 기회를 아들 낳을 기회로 보고 특정 성별의 셋째 자녀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다시 셋째로 아들을 낳은 경우와 낳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된다. 셋째를 원하지 않았지만 두 딸에 이어 아들을 낳은 부모는 자신뿐 아니라 친정부모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셋째는 아들이어서 든든하고, 막내여서 예쁘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안쓰럽기까지 했다. 첫째와 둘째 자녀를 키우면서 얻은 육아의 경험을 살려 더욱 잘 키워보겠다고 결심하였다.

셋째를 약간 수월하게 낳았거든요. 그리고 (아들 낳아서) 저보다는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막내는 남자 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터울이 있게 내가 서른 살이 좀 넘어서 낳은 아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또 다른 기쁨을 주는 아이

구나. 여태까지 지나왔던 시행착오, 내가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했던 시행착오를 조금 이렇게 피해가면서 잘 키우려고 했던 아이? 그래서 뭐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잘 커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안쓰럽고 막내는 좀 마냥 어리게만 보이고

또 셋째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딸을 낳은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해 못내 아쉬워했으며,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였다. 셋째마저 딸을 낳은 경우 친정어머니 역시 서운해 했으며, 딸의 시댁 어른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솔직히 다들 힘들게 낳는데 딸이면 어떻게, 아들이면 어때요? 소중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나름 아쉽기도 했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리고 셋까지 이렇게 낳을 것이었으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걸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셋째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쪽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니까 약간 기대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딸을 낳고 나니) 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옆에 그 친정엄마가 굉장히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도 바로 오지 않았었고. 그때는 이제 시어머니가 올라와 계시니까, 어머니 눈치도 보여서 세 번째 딸인데 저렇게 가나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상과 같이 다자녀를 둔 가정은 셋째를 원했는지의 여부와, 특정 성별을 원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야 하는 책임을 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4절 다자녀 가정이 바라는 지원 및 저출산 해소 관련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로부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사회 여건을 조사하였으며, 심층면접을 위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자녀 양육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양면성을 제시하면서 사회의식과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 바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두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는 출산 및 양육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였다. 조사 지침에 따르면 조사원들은 응답문항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에 기입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원이 설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하는데, 이 때 제시된 응답 내용은 약 20가지로 기혼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해 바랄 수 있는 지원의 종류를 광범위하게 포괄한 것이었다. <표 4-9>는 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지원을 물어본 결과 중 빈도수가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자녀 보육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을 가장 많이 거론하였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혜택(특별 공급 및 특별 대출)이나 소득공제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도움이 될 만한 지원 두 가지를 고르라고 요청받았기에 1순위와 2순위를 언급하였는데, 두 가지 영역에서 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상위 네 가지는 같은 종류의 지원이었다.

〈표 4-9〉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종류

구분	1순위		2순위	
사 회 적 지 원 의 종 류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141 (55.3%)	아동의 방과 후 학교 지원	45 (18.3%)
	아동의 방과 후 학교 지원	21 (8.2%)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 대출	29 (11.8%)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 대출	20 (7.8%)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28 (11.4%)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세금감면)	17 (6.7%)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세금감면)	25 (10.2%)
	기타	56 (22.0%)	기타	119 (48.3%)
	전체	255 (100.0%)	전체	246 (100.0%)

주: 1) 1순위에는 무응답 1명, 2순위에는 무응답 10명임.

2) 기타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출산 크레딧),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 자금지원, 종일 제운영 유치원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직장 보육시설 확충 등이 있음.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세 자녀 가정에서는 자녀 보육비를 지원받아 어린 자녀(0~2세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들은 “남편이 육아에 관련이 거의 없으니까요, 바깥 일만 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어린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는데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자녀 연령에 맞는 놀이 위주로 충분히 놀아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전업주부임에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다.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다른 큰 자녀를 돌보고 밀린 집안일을 하기도 하며, 휴식을 취하고 병원에 가는 등 유용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가 아이 보기 힘들니까, 제가 보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게 집에서 제가 하루종일 데리고 있어도 아이 그 마음 잘 못 채워주더라고요. 저도 이 것저것 막 할 일이 많으니까 아이는 뭐 놀아줘 하는데 놀아주긴 해도 아

이의 반도 못 채워주고요, 집에 있어.. 집에서 놀이주고 그 놀이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좀 몇 시간 놀고 나면 너무 지루해 해요. 밖에 나가자는데, 또 동생이 이제 깨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같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답답해하고, 제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아기 그 큰 아이와 한참을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고, 뭐 놀이나 그런 마음을 충족을 못 시켜줘서 차라리 거기 보내는 게 더 아이한테 좋겠다 싶어서, 네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그 시간에 (병원에) 갔다 오던지 하죠. 그 전에는 아파도 아예 병원을 안 갔죠. 그냥 시중 약으로 어떻게 버텼죠.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이나 이런데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짬짬이라도 아이를 좀 돌봐주면서 엄마가 좀 아이랑 좀 떨어져서 엄마가 그 엄마의 그 힘든 것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하나 해서. 그러면 엄마가 뭐 긴 시간 아이 때문에 어차피 불안해서 떨어져 있던 않을 테지만 그 시간이 정말 꿀 같아요. 꿀맛 같은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좀 엄마들이 힘내서 애를 키우지 않을까. 그러면서 애 하나 키우는 것 많이 어렵지 않네, 그럼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낳아보려는 생각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육시설의 등록이 무상으로 지원되어 무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 시설에 자녀를 보내기는 하지만, 시설 수가 양적으로 부족하여 등록 대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시설상태가 열악한 곳이 많고 보육교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활동과 관련된 추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특히 직장맘의 경우 등록 대기명단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며, 보육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하였다.

삶이 이러니깐, 어려우니깐, 살아가는데 절박하니까 다들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환경이 안 좋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어린이집이 안 좋아도 가는 거야. 여기 이 근처에 어린이집 몇 개나 돼요? 이 근방만 해도 구립은 2개 밖에 없어. (중략) 선생님의 인성도 영향이 엄청 큰데, 그거는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전문성 가진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몰라도, 또 실제로 들어가면 애들한테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 내가 알기로도 컴퓨터만 하는 선생님도 있다는 걸 내가 들었고, 애들이랑 1년 동안 지내면서 애기의 성향을 몰라. 그런 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 그 외에는 그냥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원장들,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원장들이 문제가 있는 그런 자질 문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좀 평판이 있는 데는 엄청나게 대기자가 몰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전업주부들도 아이를 맡기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원래 목적인 워킹맘이었잖아요. 맡기고 싶어도 가봐도 대기순서 몇십명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가 잘못됐다는 거죠. 또 애기 엄마들 애를 맡기고 출근하면은 보통 직장이 먼 경우는 9시 넘어서 출근하게 되요. 그 문제, 그리고 퇴근도 빨리 해야 되는 문제. 당신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 많이 낳을수록 돈 많이 줄게요 라는 그런 관점은 오히려 먹히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세 자녀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비뿐만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큰 자녀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등록금과 같은 목돈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최근 대학등록금을 반값 또는 무상 지원한다는 정책, 대학을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바

라면서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대학등록금의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로또에 당첨되거나 이민 등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게 뭐 풍족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크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셋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나중에 교육비죠 지금은 좀. 나중에 애들 대학갈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태어나면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원비 문제는 별 걱정이 안 드는데, 근데 대학이에요 일차적으로 대학. 그 다음이 나중에 애들의 취직문제, 결혼문제인데. 결혼이야 자기들이 취직해서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걱정은 대학인데, 대학등록금이 매년 다르게 치솟는데..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애들이 대학갈 때 과연 우리가 대학등록금을 다 조달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부담하죠 미래가 좀 불확실한 거죠 지금 추세로 보면 그때 되면 한 학기 등록금이 천만 원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년 모아서 겨우 1년 등록금 밖에 못 채우는데, 야.. 뭐가. 전면 무상이 되든, 하하.. 반값.. 그러든지 아니면 대학을 안 가도 전혀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든지. 세 번째 대안은 로또죠

대학 안 나와도 충분히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사회로 변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희망이 있었고,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희망이 자꾸 없어져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정말 SKY 같은 유명 대학이 아니면 더 대우를 못 받는다, 힘들어지는 상황.. 오히려 자기 스펙 때문에 유학도 가야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더 힘들어진다, 사회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런 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는 거는 솔직히 희망을 갖진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니네 유학가고 싶으면 가라, 가서 돌아오지 마라 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가서 좀 경쟁 없는 데 가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좀 못사는 나라라도 가서, 니네가 가서 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세 자녀 부모들 중에는 주택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벌이 가정의 한 아버지는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생계비로 모두 지출되어 저축의 여유가 생기지 않고, 이로 인해 전세자금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나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기를 제안하였다.

전세가 딱 정해져 있는데, 살림은 딱 그만그만한데, 애 하나 낳을 때마다 살림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공간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그게 제일 어려웠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애들 인원수에 따라서 뭐 한다고 하는데, 공간 때문에 또 부모들이 안 낳으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해준다면, 인원수에 따른 집안 배정 같은 거 있잖아요. 평수가 안 되면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이제 전세자금을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아도 생계비로 다 들어가니까, 저축이 안 된 상태니까 전세 자금을 확보할 확률이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대출을 하면 했지 저축할 확률보다는 대출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뭐 셋 정도 낳으면 대부분 다 어렵지 않을까, 남자 혼자 벌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라에서 어떻게서든 좀 이 고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야 애를 많이 낳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 귀찮다고 또 안 낳잖아요.

부모들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에 대해 “모든 혜택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생색내기식의 경제적 지원이었기에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지역 별로 차이가 나는 출산장려금의 경우, 많이 지급되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있음을 느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기를 원했다. 특히 영유아를 위한 예방접종은 필수 접종뿐 아니라 선택 접종까지 모든 가정이 조건 없이 지원받아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느끼는 게 뭐 한 달에 일이십만원 주는 거는, 그것도 셋째 낳았다고 조금 보조금 주는 거는 그게 지자체 예산이다 보니까, 돈 많은 **구는 셋째 낳으면 천만원씩 주는데, 돈 없는 oo구나 모모구는 이런 데는 몇 십만원 밖에 안 줘요. 그런 것도 결국은 돈 많은 **구에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돈 없는 oo구나 모모구에 사는 돈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오히려. 그니까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이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자체한테 떠넘기는 것도 불합리하다, 정부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에 맞게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유아 예방 접종 같은 것도 오히려 비싼 거는 무료가 아니예요. 기본 접종이라고 해서싼 것들은 무료인데 선택은 다 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혜택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예방접종 한 번에 몇 십만원, 십몇만원 없어서 못 맞추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벌이는 안 되도 집이 있어버리면 그런 거 때문에 소득인정액까지 따져가지고 결국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불합리하죠. 부모가 이거는 더 맞추고 싶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안 맞추는 예방접종이라 하더라도 아이한테 필요하다면은 무료로 가는 게 맞다고 보구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3~4세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해 보았으나 실제로 지원받기 어렵고 융통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부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액, 최저 생계를 위해 다자녀 조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다자녀 부모의 높은 학력, 작은 규모의 주택소유, 많은 가족수에 따라 많이 지출되는 보험료 등에 따라, 정해진 소득기준 보다 높은 가정으로 평가받았다. 그들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있으나 혜택을 받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립된 정책과 현실적 지원 측면의 갭이 있다고 하였다.

자산이 있고 뭐 부채를 다 따져가지고 지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채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 유만으로 선택의 폭이 조금만 책정이 되는 거야. 근데 부채가 훨씬 나한테 이자를 많이 내고 힘든 상황이고 일반 직장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며 그 집을 초과해서 오히려 빚은 더 많은데 돈은 더 많이 내고 힘든 상황이고 시댁 생활비까지 내가면서 사는 상황이고 월급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동사무소 가서 뭐 이제 저소득층 신고하려면 뭐 부모님이 돈을 벌고 계시냐, 집이 있느냐 뭐 이런 것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별개인 것 같아요. 막상 부모님이 뭐 산다고 해도 본인들 먹고 살기 빠듯한 거지, 그게 자식들을 돕기에는 뭐 돈 많은 사람들 아니고서야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나라에서는 정책을 그렇게 묶어 놔더라고요.

저소득층을 신청하려고 동사무소에 가면 남편이 대출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80 이상은 되는 걸로, 사실 뭐 우리 남편이 실질적으로 70~80 못 벌고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국가 전체로 보면, 훨씬 더 저학력의 사람들이 고통을 갖고 있으니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은 저는 인정은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정책의 도움을 받으려고 보니까 나는 도움 받을 수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세 자녀 혜택 있다고 해서 가 보면은요 저희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솔직히 또 보험료도요, 가족이 많으면 보험 수가도 올라가요. 보험료도 많이 내는데 어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보험 수기는 인원수대로 해서 올라가고, 혜택은 보험료 얼마 이하 딱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것 나오면 에이, 또 우리 일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좀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주이주 차상위계층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그냥 별로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 외에도 세 자녀 부모들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중에서 가족여
행지원, 전기요금 감액 등에 대한 아쉬운 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요새 뭐 여행상품권인가 그
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여행 무슨 지원 해준다고 그리고 그거 이렇게 뭐
지 무슨 계층에 한해서만 여행상품권을 주면 그걸로 이제 여행해서 쓸 수
있게끔 나왔다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지
원도 솔직히 3만원, 4만원 갖고 어떻게 안 되고 참, 그렇거든요 지원도
좀 풍족하게 해주시면.. 물론 이제 여행갈 때 정말 택도 없이 적은 금액으
로, 물론 동기유발은 되겠죠 아 내가 이걸 받았으니깐 어딜 가야되겠다는
생각은 하게 되겠지만 과연 그 돈으로 차비는 제대로 끊어서 갈 수 있을
까? 차라리 이걸 몰아주기를 하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낱자 잡아서 예
약하고 해서 가겠지만 이것 차비도 간신히 될까 말까..

한전에 전화해서 저희 세 자녀고 그런 서류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몇
프로 할인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게, 셋이
니까 이렇게 식구가 많잖아요 그럼 전기도 많이 쓰게 돼있어요 근데
300kw 넘어가면 더 낸. 누진세 더 내는 거 아시죠? 저흰 또 누진세를
내요

그러나 몇몇 세 자녀 부모들은 다자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완벽하
지 않을지라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출산과 양육 지원금이 적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자녀에 대해 관심
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편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대
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게(다자녀를 위한 지원들이) 참 묘하게, 좀 듣성듬성 구멍은 있지만,
그래도 채워지려면 채워지더라고요.

출산할 때 30만원 준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국가가 너희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의 의사표현인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나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하여서도 물어보았다. 조사에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조사원들은 위 문항을 조사할 때 응답문항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에 기입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 때 제시된 응답 내용은 약 10가지로 기혼 여성들이 생각하는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였다. <표 4-10>은 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출산과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 여건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항목은 사교육비 경감이었고,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공교육 강화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 역시 자녀 양육에 바람직한 여건이라고 보았다. 질적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참여자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대학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보다 덜 된다고 한 부모도 있었다. 그들은 다자녀를 키우면서 형제자매 간에 도움을 주는 품앗이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자녀에게 사교육을 끌고루 시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마다의 특성을 살려 집중된 사교육을 제공하는 부모도 있었다.

점점 조금씩 이제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지금은 미술하고 피아노만 하지만, 어릴 때니까 이거를 시키는데, 계속 계속 애가 예체능으로 나갈 것도 아니고, 미술하고 피아노만 시킬 수도 없잖아요. 애가 뭐 막 천재도 아니고 다른 애들 하는 것 기본은 따라가려면 집에서 열심히 하던지 아니면 어쨌든 받쳐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돈이 들어가고, 제 입장에서 사교육비죠, 원하든 원치 않든.

크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면 셋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나중에 교육비죠. 다른 사교육비 같은 거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큰 애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과외를 하고 직접 가르치고 하니깐, 둘째는 지 언니가 가르치면 되고, 셋째는 누나들 돌이나 있으니까 가르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학원비 문제는 별 걱정이 안 드는데. 근데 대학등록금이 문제죠, 일차적으로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또 집안 형편이 넉넉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솔직히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싶고, 악기도 하나 해주고 싶고, 하나면은 뭐 개한테 올인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마다 또 재능이 있어요. 나름 이렇게 보면은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재능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표 4-10〉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여건의 종류

구분	1순위		2순위	
바람직한 사회 여건	사교육비 경감	67 (26.4%)	사교육비 경감	73 (29.7%)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39 (15.4%)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42 (17.1%)
	공교육 강화	32 (12.6%)	질 높은 보육 육아지원 시설 확충	31 (12.6%)
	경기활성화 (고용안정)	31 (12.2%)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23 (9.3%)
	기타	85 (33.4%)	기타	77 (31.3%)
	전체	254 (100.0%)	전체	246 (100.0%)

주: 1) 1순위에는 무응답 2명, 2순위는 무응답 10명임.

2) 기타에는 양성평등 구현,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복지수준의 향상,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등이 있음.

또한 경기활성화와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내용도 자주 언급 되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만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분위기인 학벌위주 사회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을 안 가도 전혀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든지..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갈수록, 뭐라 그럴까, 갈수록 각박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문득문득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제도 중 자녀 보육비나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표 4-11>), 62.7%는 지원을 받지 않았다. 지원을 받은 37.3%의 응답자 중에는 10.6%만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나머지 20.8%는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5.9%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4-11〉 세 자녀 가정의 자녀 보육, 교육비 지원 도움 정도

구분	N (%)
지원 받지 않음	160 (62.7%)
매우 도움	27 (10.6%)
대체로 도움	53 (20.8%)
별로 도움받지 못함	15 (5.9%)
전체	255 (100.0%)

주: 무응답은 1명임.

심층면접에 참여한 세 자녀를 둔 부모는 결혼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는 결코 돈이 많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며, 사회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희망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

성되기를 기대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은 다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하였다.

양육에 대한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바뀌어야 된다. 예전엔 인구가 적고, 인력이 노동력일 때는 부모가 주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인력이 그 어떠한 가정의 노동력이 아니라 전체 노동력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사회가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모든 육아의 책임이 개인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훨씬 더 우울증을 많이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공동체가 많이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육아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그런 게 있었던, 네트워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전히 아파트에 박혀서 개인이 인터넷으로 본 것만 가지고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는 거여서.. 너의 아이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의 아이들이야, 귀한 생명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같이 힘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이 있을 때 잠깐 맡겨놓고 아이를. 그러니까 일을 보고 하거나 이렇게 공동으로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면, 내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온전히 나의 삶의 무게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만 느껴도 훨씬 더 부담과 짐이 줄지 않을까, 그게 사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두려움에 못 키우게 하는 짓눌리는 사회가 일단 저는 잘못 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같이 키우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돈이 아니어도 요즘은 공동육아, 품앗이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사회에 자기 에너지를 나누고 하면 뭐, 충분히 키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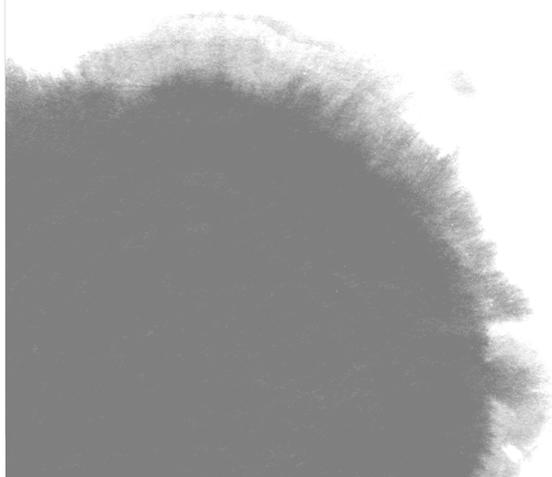
지금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갖기도 버거울 만큼 주눅 들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에. 그리고 그런 것을 사회가 또 그렇게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출산의 기본은 ‘야 애 낳으면 30만원 줄게’가 아니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하면 내 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게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막는,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고, 뭐 즐겁게 키우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1억 드는데, 출산하는데 30만원 준다면 누가 낳겠어요? 희망을 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모델도 보여주는 것,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하면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어’라는 모델들. 그런 것을 좀 보여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상에서 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자녀 보육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혜택이나 소득공제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사교육비 경감,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공교육 강화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자녀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세 자녀 부모들은 다자녀의 교육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

논의 및 결론





제5장 논의 및 결론

제1절 논의

본 절에서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양적 핵심연구와 세 자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질적 보완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신 및 출산, 규범,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의하면, 두 자녀 가정 어머니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세 자녀 가정, 한 자녀 가정 어머니의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 또한 두 자녀 가정이 가장 많았고, 세 자녀, 한 자녀 가정 순으로 높았다. 반면 월평균 지출액은 세 자녀 가정이 가장 많았고, 두 자녀 가정, 한 자녀 가정 순이었다. 즉, 다자녀 가정은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인해 지출수준이 높고, 양육 기간이 길어서 경제활동을 하기에 불리하므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현영(2012)의 연구결과와 같이 부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높은 소득보장이 셋째자녀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더라도, 실제 세 자녀 가정은 두 자녀 가정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지출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았

다. 또한 본 연구결과,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는 두 자녀 미만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에 비해 자영업과 임시근로직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많은 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안정적인 고소득을 보장하는 상용직보다 부득이하게 유연한 직장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자들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심층면접참여자 15명 중 취업 중인 아버지 3명을 제외한 12명의 어머니 중 취업자는 3명이며, 이 중 1명은 남편 사업 보조, 1명은 강사, 1명은 회사원이었다. 또한, 경제수준을 ‘중하’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중, 하, 중상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한 자녀 가정의 경우 부부 모두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 순이었다. 세 자녀 가정의 부부가 두 자녀 미만 가정의 부부보다 학력수준이 더 낮고, 소득수준도 두 자녀보다 낮은 것을 볼 때에, ‘셋째 자녀의 출산이 부의 상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비취업율이 높아지고, 상용직이 아닌 임시근로직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다자녀 출산을 결심하고 실천함을 볼 때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막연히 경제적 부유함의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그들의 다자녀 욕구와 결심으로 인해 가정과 미래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따뜻한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2. 임신 및 출산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다자녀 가정의 유형은 다자녀를 원했던 가정과 다자녀를 원치 않았던 가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고 다시 특정성별을 선호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시사점을 주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셋째 자녀를 원치 않았는데 셋째가 생긴 가정의 경우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가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집단에 속한 부모들은 이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자녀를 원치 않았다면 확실한 피임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셋째 임신 배경에 대해 “(둘째의) 수유기간 직후에”, “(피임에 대해) 신경을 안 썼더니”라며 수동적인 피임 상태였음을 밝혔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피임을 했더라도 셋째를 임신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제대로 피임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하지 않고 셋째를 임신하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고 무척 당황했지만 결국은 임신을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당황스런 셋째 임신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문숙재 외(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세 자녀 어머니들은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공유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고 회상하였다. 그들은 셋째 임신의 인공유산에 대한 갈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셋째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첫째, 둘째 자녀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양육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셋째를 임신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덧붙여 다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임신 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성의 의지도 중요했지만 “남편이 설득해서”라며 남편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임신을 유지했다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가정 경제권을 주도하는 남편의 경우 다자녀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9). 본 연구의 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인공유산을 하지 않았고 이는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겨운 갈등과 고민을 통해 임신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계획된 임신으로 출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피임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원치 않는 임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로 바뀐 가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두 딸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에게서 두드러지게 보였다. 딸만 둘을 둔 어머니는 셋째 자녀가 아들인 경우는 행복을 느꼈고, 딸인 경우는 실망과 낙담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결과는 임신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것도 고민스러웠지만, 오히려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신을 유지했는데 결국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을 때 남편과 부모님들의 실망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첫째 자녀가 딸인 경우 둘째로 아들을 원하는 여성이 71%였던 선행연구(윤지연, 2000)와 비교해 볼 때, 시대가 변하여도 여성이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시대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시대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우리 남편이 바람피우지 않을까 싶어서” 아들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아들을 낳기 위해 다출산을 계획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임신 일지라도 아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심리적 부담을 안고 다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남아선호의식에 따른 임신과 출산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다출산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는 특정 성별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널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규범

본 보고서의 제 4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결혼규범은 다자녀 가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원가족의 영향을 포함하는 가치규범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양육 규범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과 관련된 결혼규범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가정환경적인 요소는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에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결과, 다자녀 가정의 부모는 형제자매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성장 과정에서 형제자매와 어울려 자라면서 아이들이 많은 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차 나이가 어린 코호트로 가면서 이러한 영향이 없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는 기혼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출산억제정책이 펼쳐졌던 시기에 태어난 이들이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어울려 자랄 수 있는 형제자매수가 그 전 세대보다 적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정내에서 많은 수의 형제 또는 자매의 정을 느끼며 살아본 경험이 없으므로, 다자녀를 계획하고 출산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질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서 양육되어진 경험이 없이 성인이 되어 다자녀 가정을 이루고자 희망했을 때의 막연함이나 두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소자녀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혈육관계의 형제자매 경험을 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육아와 같이 또래 아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이들에게 다자녀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이나 서비스제공과 같은 개입보다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캠페인과 홍보가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자녀를 키우는 것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임을

보여주는 것, 돈이 많아지만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을 바꾸는 등의 사회적 홍보를 통해 다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예인의 다출산 경험이 소개되는 것도 좋은 예시이다. 한 자녀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보고 지낸 사람은 이를 거스르고 여러 자녀를 낳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규범은 무형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사람들의 시각, 선입견, 편견을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 “아니 셋째를 어떻게 가져?”에서 “나 셋째 가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다자녀 아버지의 서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도 한국사회내의 특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서열이 낮은 사람보다는 서열이 높은 사람을, 여자보다는 남자를 귀하게 여겼는데 이러한 영향이 서열이 높은 남자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남으로 또는 서열이 높은 자녀로 성장한 경험이 본인이 가정을 만들었을 때 여러 명의 자녀를 양육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다자녀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형제자매 또는 친정 부모님의 결혼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다자녀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아버지가 가족계획(임신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하게 아버지 쪽의 영향이 전체 가정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가치규범적 영향력이 다출산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어머니의 규범이 덜 영향을 주고 있는 현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출산을 결정하고 양육을 하는 데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출산 규범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이들은 자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많이 키우고 있는 형태로, 자녀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부모가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를 비교하였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상당수의 다자녀 부모들이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이 자녀를 키워 나가면서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 규범을 집단 간의 통계적 비교로 살펴보았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는 모든 집단에서 양육 의사결정, 교육 의사결정을 어머니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친정 및 시부모님의 양육 도움 역시 응답자의 다수가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로 다자녀 가정은 다각적인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질적 연구결과,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자녀 보육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자녀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1순위로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으로써 보육비, 교육비와 관련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육비 지원(2012)을 살펴보면, 만 0~2세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만 3~4세아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

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만 5세이는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로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연차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는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만 0~2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 보육료 지원정책은 취업 상태뿐만 아니라 비취업 상태의 어머니들도 어린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보내면서 어머니들의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자녀의 교육적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지원이며 매우 환영받을 지원이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육아지원시설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설등록을 희망하는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맘의 경우 등록 대기자 명단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재원의 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 더 이상 100%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안정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보육지원 정책에 따라 자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은 늘어갈 것이며 향후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영유아를 둔 가정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취업 상태 여부, 부모의 신체적 상황, 다자녀의 경우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적, 질적 분석결과 자녀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세 자녀 부모들은 셋째 자녀를 임신하면서부터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현재 한국사회가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고용 불안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최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쟁의 최종목표는 삶의 질을 좌우

할 수 있는 대학입시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이부미와 이수정, 2010). 이 때문에 자녀의 발달단계나 교육의 수용능력에 관계없이 선행 학습 열풍에 휩싸이게 되고,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과도한 사교육 열풍은 자녀가 반드시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당시 부터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 및 양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저출산의 경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폭넓게 확장 운영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의 진정한 교육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사교육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너그러워지길 기대한다.

5. 여성의 사회진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결과,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 중에서 절반 이상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질적조사의 결과에서도 세 자녀 어머니의 80%가 전업주부였다. 기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거나 다니기 쉬운 직장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있었고, 임신과 출산 후에는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기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들은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취업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자녀 어머니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겠다.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송유미와 이제상, 2011)를 살펴보면, 탈산

업사회에서 여성은 결혼 여부, 배우자, 결혼 시기, 자녀 출산여부, 자녀 수, 출산시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면서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이 사회진출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선호와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반대로 여성이 다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사회진출의 기회가 적어지거나 아예 포기하게 된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출산과 양육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 내에서 성역할의 분업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는 여성 차별, 경력 단절에 따른 승진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균형 있는 가사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사회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산전후 휴가(급여지원 확대)와 육아휴직에 대한 배려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고, 시간제나 시차별 출퇴근과 같은 근로형태를 유연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제2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세 자녀 부모의 심층면접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였고, 다자녀 가

정의 다출산 경험 과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다자녀 출산에 영향 미치는 결혼규범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는 한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높았으며, 세 자녀 가정은 한 자녀, 두 자녀 가정보다 ‘읍’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한 자녀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 지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자녀 어머니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임신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둘째, 다자녀를 둔 가정은 성별선호가 없이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집단 ㉠-A), 성별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집단 ㉠-B), 성별과 관계없이 다자녀를 원하지 않은 가정(집단 ㉠-C),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나 셋째 출산과 관련하여 특정성별을 선호하게 된 가정(집단 ㉠-D)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다자녀 가정은 다자녀를 원해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한 가정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정성별의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에서 임신을 계획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성별의 자녀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계획되고 준비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 자녀 아버지의 연령이 높고,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어머니가 비취업 상태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자매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자매 서열이 높은 가치규범에 따라 다자녀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세 자녀 부모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출산규범을 보이고 있었다. 양육규범과 관련한 요인은 다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결정은 어머니와 아

버지가 하였고, 친절 및 시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자녀를 키움으로써 양육의 부담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자녀의 보육과 교육비를 언급하였고,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세 자녀 부모들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교육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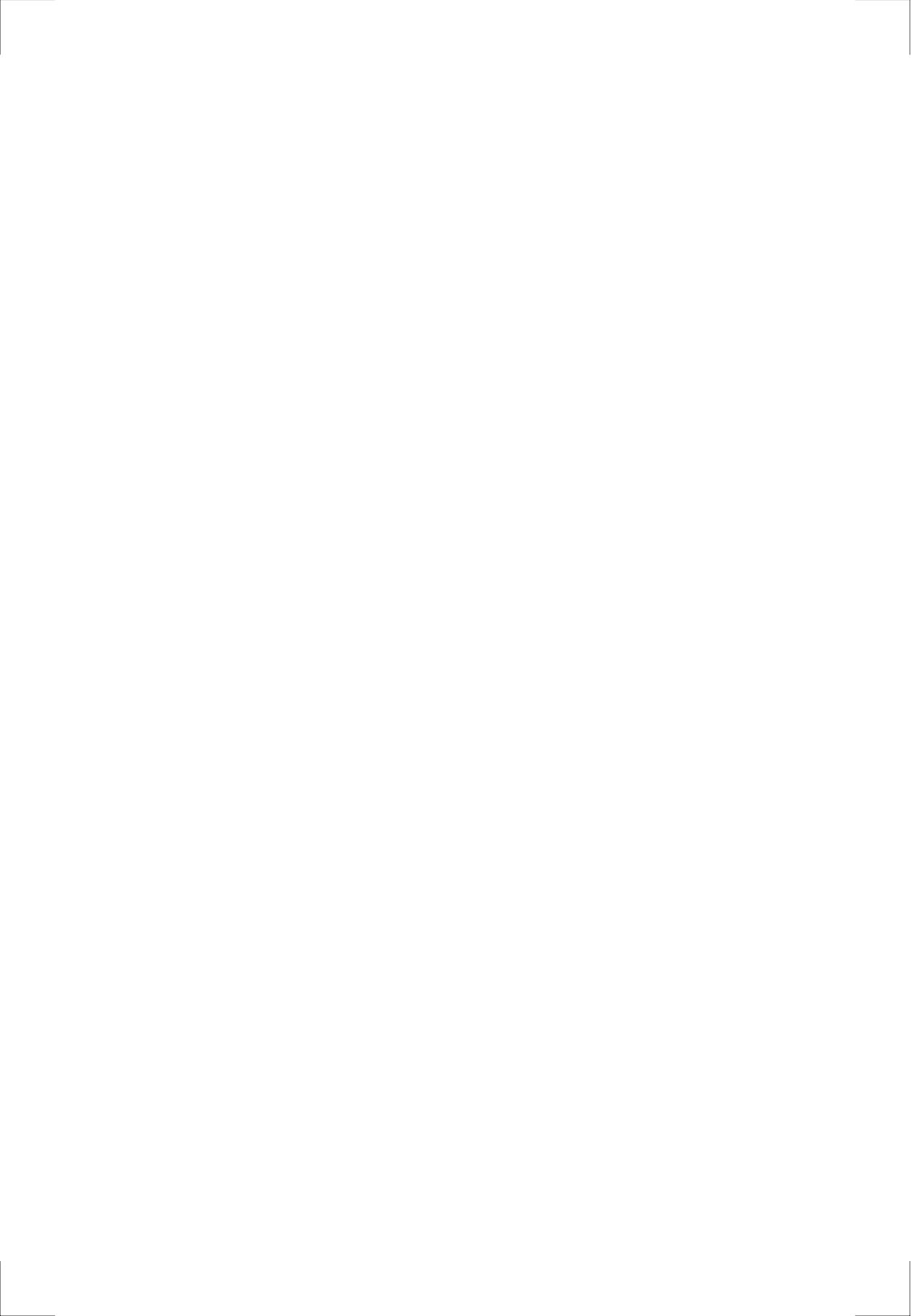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다자녀 가정의 심층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들의 다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규범적 요소와 집단별 특성, 정책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연구진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차기 연구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다자녀 가정에 관한 다양한 영역별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 다자녀 가정은 출산력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집단으로, 그 자체로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선행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 역시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질적 보완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다출산 가정의 가족 계획실태’, ‘출산 경험자의 후속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자녀 가정의 책임한계 비교연구’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세분화 되어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장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을 남들보다 오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에 대해 동시에 양육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다자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도움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거나, 원하는 도움은 없고 대신 다른 종류의 도움이 제공되거나, 행정적·시기적인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이들의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욕구는 매우 다양하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들이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욕구조사도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강경숙, 변미희, 정은미(2005).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요인분석. 한국 가족복지학, 10(3), pp.127-145.
- 강혜진(2009).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석사 학위논문, 사회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pp.639-653.
- 강복수(2001). 가임여성의 자녀 성 선호도 및 인식도와 남아선별 출산 강요 경험,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1), pp.7-15.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pp.119-149.
- 권용은, 김의철(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유아교육, 13(1), pp. 211-226.
- 김미정, 정계숙, 박희경(2010). 다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제1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
- 김성혜, 김초강(1991). 결혼관련 요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건, 8(1), pp.87-97.
- 김승권(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복지 Issue & Focus, 68
- 김은설, 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 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pp.109-142.

- 김정숙(2006).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 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 탐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김종백, 유은영(2010). 기혼여성의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381-395.
- 김현식, 김지연(2012).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3), pp.5-31.
- 남정은, 정정희(2012).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내용 분석 - 2000년~2010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 兒童教育 21(1), pp.109-124.
- 뉴스웨이(2012. 5. 1). 다자녀 가정이 곧 국가경쟁력. www.newsway.kr에서 인용
- 문숙재, 양정선, 이성은(2007).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pp.43-57.
-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훈, 성 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유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pp.33-62.
- 박용권(2020). SPSS 사회복지자료분석. 서울: 신정출판사
- 보건복지부(2012).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p.80-85.
- 보건복지부(2010).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 10.26).
- 서안리, 정영숙(2009).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관계: 한국 울산시와 중국 소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1), pp.49-68.
- 손승영, 김은정(2010, 겨울) 여대생의 가족 가치관을 통해 살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성별, 세대별 하위집단 간 가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010, 겨울, pp.169-199.

- 송유미, 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pp.27-61.
- 송호경(2004). 외동아와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서울.
- 신효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박사학위논문,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충청남도
- 윤지연(2000). 남아선호경향과 심리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pp.89-117.
- 이명진(2009). 여성의 출산계획 결정요인과 그 사회적 함의.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pp.25-45.
- 이부미, 이수정(2010). 조기교육: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학, 18, pp.85-107.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서문희, 박세경, 윤홍식, 진미정(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심층분석: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pp.67-90.
- 이현영(2012). 자녀의 출산순위에 따른 개별가구의 출산결정요인. 통계청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마이크로 자료 활용 논문 발표대회.
- 이혜경(2011).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幼兒 教育學論集, 15(6), pp.377-406.
- 임춘희(2011). 다자녀가족 부부와 개인의 다자녀가족 강점지각에 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18(1), pp.19-64.

- 전희경(2012), '젠더-나이체제' 와 여성의 나이: 시간의 서사성을 통해 본 나이경험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정혜은, 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 국인구학, 31(1), pp.147-164.
- 중앙일보(2012. 3. 14). 셋째 자녀 출생 증가에 주목한다. 중앙일보 사설, 38면.
- 조선일보(2012. 5. 20). 한 명만, 아니면 아예 셋 이상...출산의 양극화. www.chosun.com 에서 인용.
- 통계청(2011). 2011년 출생 사망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2. 2. 27).
- 통계청(2010). 2010년 출생통계. www.index.go.kr/egams
-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pp. 77-101.
- Denzin, N.(1989).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orse, J. & Niehaus, L.(2009). *Mixed method design: principles and procedures*. CA: Left Coast Press.
- Padgett, D.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부록

[부록 1] 변수 설명

구분	변수 설명	내용
종속 변수	자녀수 구분	1=한 자녀 가정 2=두 자녀 가정 3=세 자녀 가정
인구 사회학적 변수	조사구	1=동, 2=읍, 3=면
	주택 점유형태	1=자가, 2=전세, 3=월세(보증부월세, 사글세, 기타)
	어머니의 교육수준	1=고등학교 이하, 2= 대학교 이상
	아버지의 교육수준	1=고등학교 이하, 2= 대학교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1=100만원미만, 2=100~200만원미만, 3=200~300만원미만, 4=300~400만원미만, 5=400~500만원미만, 6=500만원이상
	월평균 지출액	continuous variable
	어머니의 연령	continuous variable
취업 여부 및 종사상 지위	아버지의 연령	continuous variable
	어머니의 취업 여부	1=취업중, 2=비취업(구직활동), 3=비취업(비구직활동)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1=자영업자, 2=고용주, 3=무급가족봉사자, 4=상용근로자, 5=임시근로자, 6=일용근로자
	아버지의 취업 여부	1=취업중, 2=비취업(구직활동), 3=비취업(비구직활동)
형제자매에 대한 변수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1=자영업자, 2=고용주, 3=무급가족봉사자, 4=상용근로자, 5=임시근로자, 6=일용근로자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더 좋다는 데 동의 여부	1=찬성, 2=반대
이상 자녀수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동의 여부	1=찬성, 2=반대
	이상자녀수	1=1명, 2=2명, 3=3명 이상
	이상자녀수 아들/딸 구별여부	1=딸/아들 구별 없이 2=딸/아들 구별해서
	이상자녀수-아들수	continuous variable
	이상자녀수-딸수	continuous variable

구분	변수 설명	내용
피임 여부	피임여부	1=예, 2=아니오
인공유산	(셋째아 출산 전) 인공유산경험	1=예, 2=아니오
가치 규범	응답자 부모님의 이혼, 별거, 재혼경험 여부	1=예, 2=아니오
	응답자 형제자매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여부	1=예, 2=아니오
	남편의 형제자매 중 이혼 및 별거 경험 여부	1=예, 2=아니오
	응답자의 총 형제자매수(본인제외)	continuous variable
	남편의 총 형제자매수(본인제외)	continuous variable
	본인의 총 형제자매서열 (10=서열이제일높음, 1서열이제일낮음)	continuous variable
출산 규범	남편의 총 형제자매서열	continuous variable
	자녀는 꼭 필요하다 동의 여부	0=없어도 됨, 1=필요함
양육 규범	결혼해도 자녀필요하지않다 동의여부	1=찬성, 2=반대
	(부부간 의사 결정) 자녀양육	1=부인, 2=부부 공동
자녀 가치관	(부부간 의사 결정) 자녀교육	1=부인, 2=부부 공동
	지난 1년간 친정, 시부모님께 자녀양육 도움받은 경험유무	1=예, 2=아니오
정책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동의여부	1=찬성, 2=반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종류 (1순위)	1=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2=아동의 방과후 학교 지원 3=다자녀 가정 소득 공제(세금감면) 4=다자녀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출산 크레딧) 5=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6=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 자금지원 7=종일제운영 유치원 확대 8=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9=직장 보육시설 확충 10=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1=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12=산전진찰비용 지원 13=불임부부 지원 14=출산시 산후조리와 산생아 돌보기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15=산전후 휴가(급여지원 확대) 16=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17=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도입, 장려) 18=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 출퇴근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종류 (2순위)	

구분	변수 설명	내용
		19=유사산 휴가(급여자원) 20=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21=양성평등 문화조성 22=기타
	출산·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여건 (1순위)	1=양성평등 구현 2=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3=공교육 강화 4=사교육비 경감
	출산·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여건 (2순위)	5=경기 활성화(고용안정) 6=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7=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8=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9=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0=복지수준의 향상 11=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12=기타
	세 자녀 가정의 자녀 보육, 교육비 지원 도움 정도	1=지원 받지 않음, 2=매우 도움, 3=대체로 도움, 4=별로 도움받지 못함

[부록 2] 심층면접 관련 자료

연구설명서

연구주제 :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자 : 정승은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염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자들의 결혼과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개별 심층 면담 (1회당 1~1.5시간 내외)에 의해 이루어지며,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분석될 것입니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귀하의 편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주로 귀하의 집이나 조용한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2~3회의 재면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이나 해는 없을 것이며, 결혼과 출산, 자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정책 분야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의 이름과 그 밖의 개인적인 정보는 지울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자가 분석한 후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할 것입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외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정책 분야에 발표 및 게재될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면담에 참여하신 경우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면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면담 도중 귀하는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연구에 관해 어떠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연구자인 정승은 교수 (000-0000-000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정승은 올림.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자 : 정승은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염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연구목적에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 연구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 본 연구참여에 따른 장, 단점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 본 연구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아니오
- 자료의 비밀성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오
- 연구참여가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 누가 자료를 다룰 지에 대해 아십니까? 네 아니오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_____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연구목적에 위해 면담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나의 이름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_____ 심층면접 참가자의 성명 날짜 서명

=====

나는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_____ 연구자의 성명 날짜 서명

* 본 참여동의서는 참여자에게 복사하여 드릴 것입니다.

참여자 번호 _____ 면접시작시간: _____ 면접종료시간: _____ (연구자가 기입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개인이나 가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연구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
2. 나이 : 만 세
3. 귀하의 결혼 상태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4. 귀하가 결혼할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 세
5.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6. 귀하의 교육 정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7.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없음
8. 귀하는 현재 취업하고 계십니까?
 ① 취직 중 ② 구직 활동 중 ③ 비취업 (일하고 있지 않음)
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0. 귀하가 생각하기에 가족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응답해주시시오.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배우자 나이 : 만 세
2. 결혼할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 세
3. 배우자의 교육 정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4. 배우자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없음
5.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녀 수 : 명
2. 자녀 성별에 동그라미 쳐 주시고 만 나이를 기입해 주십시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남 여 만()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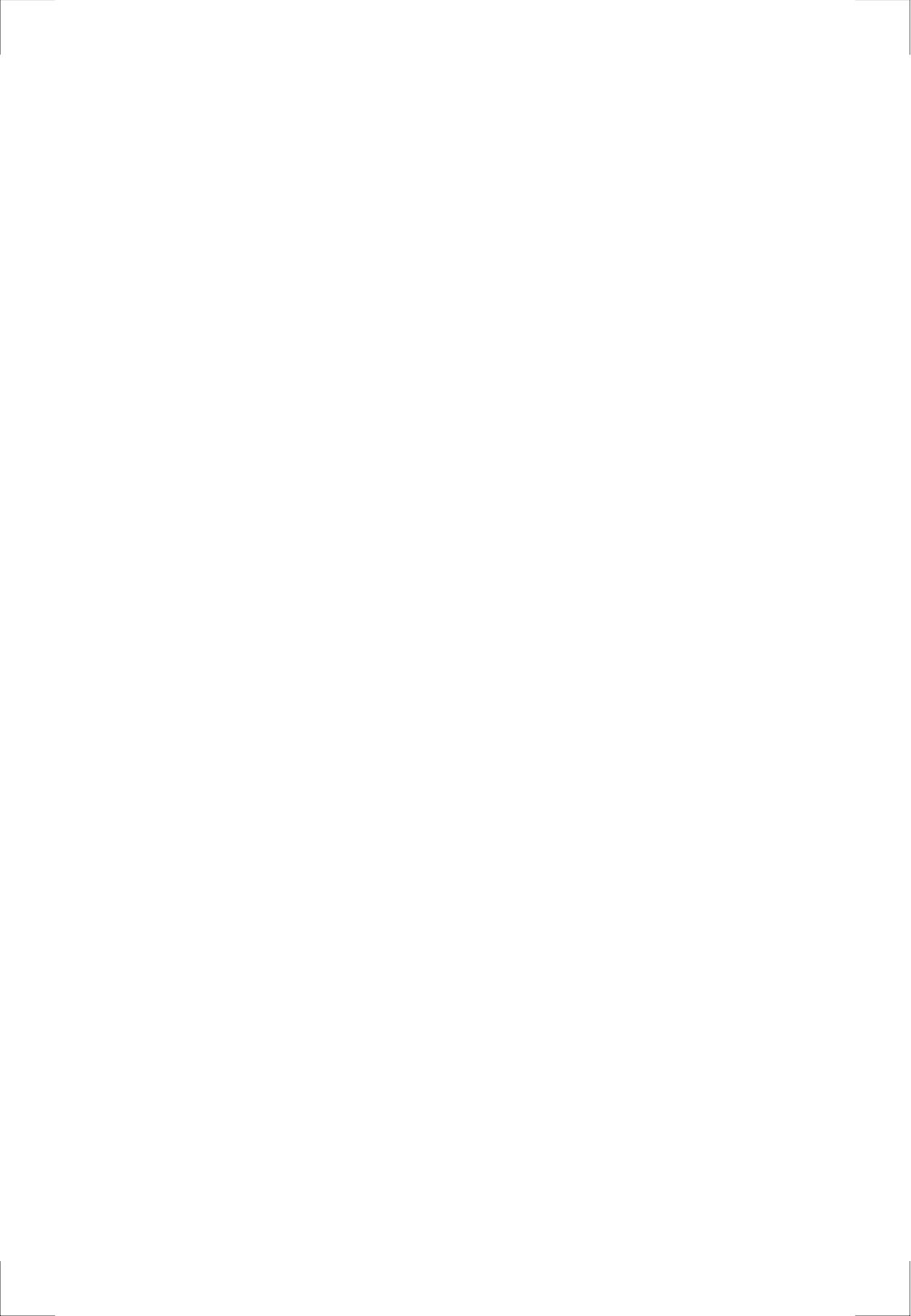
****귀하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간단한 질문지를 첨부합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결혼 후에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여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남자는 결혼을 해야 생활이 안정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없더라도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자녀에 대해 기술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식구 한사람 더 있는 것이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아들을 갖고 싶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자녀가 있어야 노후에 경제적으로 든든해질 것이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자녀가 있어야 노후에 신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부모와 자녀 간에 특별한 사랑이 생겨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자녀를 기르면서 삶과 자신에 대해 배워 나갈 수 있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지금의 내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있으면 책임감이 증가하고 성공하기위해 노력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받는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로 인해 배우자와 내가 더 가까워진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자녀가 있으면 늙었을 때 외롭지 않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자녀가 있어야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를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키운다는 것이 걱정된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있으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있으면 배우자와의 개인 시간이 줄어든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아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 감사합니다.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2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이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어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어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이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이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민간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태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사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이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상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잉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 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I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비우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근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사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장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의평가및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의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6 • 간행물회원제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고령사회정책:유럽국가의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구축및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복지공적전달체계개편방안:공적전달체계의수직적편제와수평적배열의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문화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잡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2012년 아시아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연구(3년차)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외복지육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주체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조세정책 정립 방향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남상호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